



[뉴스] 최저임금 2라운드 노사 高물가에 이견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620.44 (+23.86)	코스닥	865.98 (+9.73)
금리 (미국 3년)	3.031 (-0.015)	환율 (원/달러)	1275.00 (-9.10)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尹, 한동훈 임명 강행 여야 대치 격화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17일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18개 부처 가운데 2곳을 제외한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들 장관 2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보류했다.

한동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일 각 열렸으나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한 후보자의 자녀 스펙 관련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후보자와 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을 예고했다. 그리고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끝나자 이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총 6명이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만 공석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향후 정국은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규제 없는 ‘라방’ 활개… 딜레마 빠진 유통가

(라이브방송)

유통업계 ‘라방’ 뜨거워 감자 라방 관련 제도·규제 전무해 실적위해 우후죽순 뛰어들어 상품 품질·이해 왜곡 등 우려

10조원의 시장, ‘라방’ (라이브방송·라이브커머스)이 유통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유통가가 라방을 둘러싼 모순에 빠졌다. 특히 흡소핑과 T커머스가 이렇다.

전통적으로 방송 판매에서 규제를 받아온 이들은 좋은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개를 자제하고 검증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다른 유통사와 신규 라방 플랫폼, 비(非)유통사, 개인은 적극적인 소개와 화면으로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규제의 불균형이 뚜렷한 상황이다. 미디어 커머스로써 라방의 원조

격인 흡소핑과 T커머스까지 대대적으로 라방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고 투자를 하는 가운데, 라방을 둘러싼 유통가의 속내가 복잡하다.

1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유통 대기업들이 규제 밖 라이브 방송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규제가 없는 상황을 이용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증권사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추정하는 라방 시장 규모는 네이버 쇼핑이 2020년 처음 도입하자마자 3조원대 시장을 형성한 후, 2022년 6조원(추정), 2023년 10조원대다.

현재 라이브방송을 장·단기에 관련 없이 주기적으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기업의 수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공룡’으로 불리는 롯데, 신세계, 현대, GS, 카카오, 우아한 형제들 등이 모두 라방을 진행하고 있다. 각 유

통사내 계열사들은 또 각개전투로 라방을 진행 중이다. 유통사 외에도 순한 기업들이 자체몰을 통해 라방을 진행했다.

대기업 유통사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라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한 목소리로 라방 관련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라방 상품 품질은 물론 라방 중 상품 이해를 왜곡시킬 수 있는 소개를 조심한다고 주장하며 라방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라방을 새로운 커머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라방은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고객을 불러오는 효과가 어느 커머스보다 강력한 편”이라며 “라방 개시 이후 우리 기업은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매출액이 라방으로 유입된 2030세대 고객으로 총매출액은 것 뿐만아

니라 중년 이후 세대까지 ‘젊은 이미지’를 통해 유입시키는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라방이 최근 각 플랫폼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본다. TV에서도 라방 시청과 채팅 참여가 가능한 요즘이다”라며 “각 커머스의 본질도 있지만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라방을) 진행할 부분이고, 과정에서 기술력이 발달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자신하는 만큼 이들의 라방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7월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등 6개 플랫폼업체의 부당광고 21건(CJ제일제당·하림·티몬 등 업체 16곳)이 적발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둔촌주공 재건축 타워크레인 철수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작했다.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까지 현장 내부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멈춰버린 크레인 모습. /뉴스1

‘테라·루나사태’ 불똥… 게임사 블록체인·P2E ‘신뢰 균열’

컴투스·넷마블 등 가상화폐 급락 차세대 먹거리 P2E 게임도 비상

게임업계가 루나와 테라 가치 폭락 사태에 일동 비상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 게임사들은 개발하고 있는 P2E 게임이나 가상화폐 등의 신사업에 악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 가치 폭락 사태 파장이 게임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컴투스, 넷마블, 위메이드 등 다수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상장시켰지만 지난 6일부터 대폭락하기 시작했다.

UST(테라)와 LUNA(루나)는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위치할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지난 8일 1달러 가치를 유지하던 UST의 가치 연동이 깨지면서, LUNA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됐다.

같은 날 LUNA는 약 72달러에서 약 59달러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P2E분야를 꼽으면서 해당 사업을 확대 시키고 나섰지만 가상화폐 가격 폭락으로 발행한 코인의 가치는 급락하고, P2E 게임사업 구축

에는 비상이 걸렸다. 가상화폐 정보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컴투스 그룹의 블록체인 게임에 사용중인 C2X코인은 지난 15일 기준 1080.3원으로 테라/루나사태 전 날인 8일 기준 2773.4보다 61.1% 급락했다. (8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격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한진그룹 <4면>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상희 측 “고민 끝에 국회의장 불출마… 지선 승리가 중요”
▲ 이준석, 23일 봉하마을행…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참석 /사진 뉴스1

▲ 민주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 토론회 불참… 시민 무시”
▲尹대통령, 2022 다보스포럼 특사로 나경원 전 의원 파견



▲ 강용석, “윤대통령과 통화는 사실… 선거 개입 없어” /사진 뉴스1
▲ 이낙연, 文 사저 시위에 “정당한 의사 표현 아냐… 자제 요망”

5% 물가상승률 두고 이견... 기업 부담 ↑ vs 생활 안정화

〈경영계〉

〈노동계〉

최저임금위원회 2차 회의

경영계 “영세 기업들 부담 커져”
노동계 “서민생활 더 어려워져”
최저임금 시급·월급 여부도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2차 회의에서 최근 5%대 육박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컸다.

경영계는 고물가 상황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영세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으며 내년 ‘동결’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져 최소한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라도 내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저임금 회의이기도 하다.

최대 관심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률 수준이었다.



1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료DB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전년대비 5.1% 올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다.

인상률 추이만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2.9%,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됐으며, 올해는 5.1%로 각각 결정됐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2022년도 누적 물가 상승률이 8.2%인데 최저임금은 42%

가까이 올랐다”며 “급격히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은 회복에 시간이 걸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안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요즘 서민들은 만원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데 대기업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임금 노동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게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노동계는 “사용자단체는 최임위 안팎에서 경영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수 있어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언급해 붙을 지켰다.

경영계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

호한다’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단 한 차례 적용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결정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을 병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기존대로 시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기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유급 주휴시간이 달라지는 민감한 사안으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노사 반발로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 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MZ세대, ‘괜찮은 일자리’ 워라밸로 판단

경총 1984년~2003년생 1000명 조사 응답자 50% “연봉수준 3000만원대”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일자리 선택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1984~2003년 출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들 세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연봉 3천만 원대 직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괜찮은 일자리의 판단 기준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6.5%(복수응답)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라고 답했다. 이어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43.3%), ‘복지제도가 잘 된 일자리’(32.8%),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25.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뽑은 비율은 14.0%에 그쳤다.

경총은 워라밸을 추구하고, 물질적 보상보다는 개인적 시간의 확보를 선호하는 M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으로는 ‘3000만원대’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4000만원대’와 ‘5000만원 이상’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27.6%, 12.2%에 달했다.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으로는 50.7%가 ‘수도권’을 꼽았으며 ‘워치와는 상관 없음’(37.7%), ‘지방’(11.6%)을 꼽은 답변도 있었다.

또 괜찮은 일자리의 규모에 대해 29.1%는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워라밸과 실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정에 민감한 MZ세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었다”며 “한 직장에서만 일하고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는 전통적 일자리의 개념이 변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4대 그룹 총수·6대 경제단체장, 美 대통령 만난다

만찬 자리 함께 마련... 경제협력 의지 한미 정부-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기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이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뿐 아니라 국내 6대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재계와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환영 만찬에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미 4대 그룹 총수 중 한 명으로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 4대 그룹 총수와 국내 6대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양국 정상이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더 붙여 국내 경제단체장들과의 만찬 자리도 함께 마련하는 것은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4대 그룹은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만찬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는 미국 기업인들도 일부 자리할 것으로 보여 한미 정부-기업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토지소유자 소재확인 공고(2차)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 2항에 의거 가스배관 시설을 설치하려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관련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41-3
- 소유주: 유준상, 정재룡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까지
- 공고인: 협성설비(주)
- 연락처: 조규준 010-9011-9304

2022. 5. 18

관리감독은 뒷전... 거짓·과장 광고 즐비

>> 1면 ‘규제 없는 라방’서 계속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14건, 66.7%)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유에 효능 광고(1건, 4.7%) 등이었다. ‘식욕억제를 통한 다이어트’ ‘중금속 배출과 해독 등 신체 효능효과’ 등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업체 5개에서 송

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이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344명(68.8%)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현이 적발된 대부분의 경우는 판매업체가 플랫폼업체와 협의 없이 프리랜서 진행자가 광고·판매하는 방송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플랫폼업체와

협의하거나 플랫폼업체가 단독 진행하는 방송에서도 위반내용이 확인됐다.

의명을 요구한 김○○씨는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라방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 이상으로 매번기마다 매출 내 차이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강력한 규제는 결국 대기업과 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적발 사례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실시간 방송이면서 동시에 인플루언서 등 규제를 받는 방송을 진행한 적 없는 사람들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호스트로 삼는데, 이들의 입을 실시간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잘 나가는 '인뱅'... 개인사업자 대출 등 포트폴리오 확대

편의성·수수료 등 장점... 이익 호조 '사장님 대출' 등 특화 서비스 붐물 상품 다각화로 올해 호실적 기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대출도 선보이면서 여신을 늘리고 있다. 고객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호조세다. 케이뱅크는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카카오뱅크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편의성과 상대적으로싼 수수료를 바탕으로 인터넷은행은 금융권의 '메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7년 출발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행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분위기도 달라졌다.

최근 들어 인터넷은행은 가계대출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중이다. '모임통장', '지금 이자받기', '사장님 대출' 등 특화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층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들의 수요가 늘고, 고객 연령층도 확대될 전망이다.



토스뱅크 마이너스통장



/토스뱅크 케이뱅크 '사장님 대출'

업자 대출 서비스와 소호(SOHO)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단순 대출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의 자금관리까지 방향성을 맞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중·저신용자 대상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면서 고객들이 몰리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올해 호실적을 달성 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을 각각 245억원, 699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흑자전환, 카카오뱅크는 분기 최대실적을 달성하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은 올해 금융당국에게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이라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상품도 있어 중·저신용자에게는 더욱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 합계는 지난 3월(36조 1439억원)대비 1조1279억원 증가한 37조2718억원으로 집계됐다.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월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1월 1조1916억원, 2월 6580억원, 3월 8114억원, 4월 1조1279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이 4개월 연속 가계대출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배경은 개인신용대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대출시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2월 인터넷은행 중 처음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인 '사장님 대출'을 선보였다.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보증·담보 없이 신용도에 따라 최고 1억원, 최대 5년까지 대출 가능한 신용대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출시 한 달 반만에 2000억원의 대출 실적을 기록했다.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대출 상

품 출시로 경쟁사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뒤이어 개인사업자대출을 선보이고 있다.

케이뱅크는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를 거쳐 4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심사에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연 3.42%의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는다.

카카오뱅크 역시 올 하반기에 개인사

오미크론에 힘 못쓰는 '제로 코로나'... 정책 찬반논쟁 격화

차이나 뉴스&리포트
세계 전문가들 제로 코로나 정책 비판 중 정부 "무책임한 발언... 방침 고수"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층 더 거세졌다. 강력한 봉쇄와 격리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와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가능한 모든 자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마샤오웨이 주임은 당 발행지 기사를 통해 "중국은 무관용 제로 코로나 정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대규모 검사를 일상화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마 주임은 제로 코로나 전략으로 상하이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이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며 "무관용 제로 코로나 조치로 우한 사

태 이후 가장 혹독한 도전을 이겨냈고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앞으로는 감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검사와 격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주임은 10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도보 15분 거리 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부스를 설치해 검사를 일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위한 격리 시설과 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증상 감염자를 수용하기 위해 경기장이나 학교, 조립식 건물 등에 임시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반면 외부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바이러스의 양태와 지금 우리가 미래에 예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러한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다른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회와 경제



일부 이동제한이 풀린 지난 10일 중국 상하이 자딩구에서 시민들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19 핵산검사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AP·뉴스시

그리고 인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 정부는 이 발언들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으며, 모든 감염 사례를 전면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원이자라면, 만족할 만두 하지








▶(왼쪽부터) 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19년 대한항공 50주년 행사

역변의 20년,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11> 한진그룹

트럭 한대로 수송보국 도약
韓물류·항공산업 선도
메가 캐리어 '날갯짓'

메트로신문이 창간한 2002년에는 많은 일이 있었다. 국가 이벤트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꼽을 수 있다면, 재계에서는 '조중훈'이라는 별이 지고 그의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미군이 버린 트럭 한 대로 대한항공, 한진해운, (주)한진 등을 일궈낸 1세대가 막을 내리고 2세대 경영이 시작됐을 때, 시장이 한진에 거는 기대는 컸다. 한진그룹은 창업주 타계 후 조양호 회장이 2003년부터 한진그룹 회장직과 대한항공을, 차남이 한진중공업, 3남이 한진해운을, 4남이 메리츠금융을 각각 맡아 경영하게 됐다.

◆우여곡절 겪으며 성장하는 한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송은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왔다. 공간의 이동은 삶의 필수적 요소이고, 시간의 단축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다.” 조중훈 창업주가 자서전 '내가 걸어온 길'에 남긴 말이다. 한진그룹이 내세우는 단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창업 이념인 '수송보국(輸送報國)'일 것이다.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주)한진은 그 꿈을 이룬 기업들이었다. 지금은 사라진 한진해운도 2000년대 초에는 어닝서프라이즈 기사에 자주 이름을 올렸고 대한항공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의 힘을 보여주며 한국인의 자부심이 되기도 했다.

조양호 회장 취임 1년 후인 2004년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35주년을 맞아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라는 새로운 비전 'Excellence in Flight'를 선포하고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이미 글로벌 얼라이언스 '스카이팀'의 창립 멤버로 19개 글로벌 항공사와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대한항공은 2018년에는 미국의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를 통해 또 한번 도약에 성공하는 쾌거도 이뤘다. 특히 2001년에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아시아 항공시장의 중심부에 있어 천혜의 허브 조건을 과시하며 이는 대한항공의 글로벌 시장 내 입지 확보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이점과 독보적인 서비스를 토대로 환승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탑승수속 시간을 대폭 줄였으며 새로운 개념의 라운지를 개설하는 등 여객 운송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한진해운의 길은 달랐다. 조중훈 창업주의 삼남인 조수호 회장이 2002년부터 경영을 맡아 순항하던 한진해운은 2006년 조 회장 별세 뒤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최고경영자(CEO) 독자 경영 체제로 바뀌게 됐다. 시대는 한진해운에

엄혹했다. 때마침 찾아온 글로벌 금융 위기로 유동성이 급경색 됐고 회사는 어려워져 갔다. 시속인 조양호 한진 회장이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2014년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며 그해 4월 한진해운 회장직에 취임했다. 그렇게 조 회장이 선친의 꿈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역부족이었고, 한진해운은 2017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세계 7위까지 올랐던 한진해운의 끝이었다.

3대째 수송보국 경영철학 굳건
차별화된 수송·여객 전문 서비스
국제 항공업계 리더로 위상 올라
우여곡절 끝에 '조원태號' 순항
팬데믹에도 화물사업으로 극복
아시아나 합병 뎀 '메가 캐리어'

여기에 선친을 이어 '한진호'를 이끌어오던 조 회장은 기업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두 딸의 '갑질 문제'를 시작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이어 '오너 일가 갑질 문제'에서 촉발된 각종 혐의까지 더해졌다. 결국 2019년 4월 국민연금의 스튜어디스 코드 적용되면서 조양호 회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가 회장 이 된 지 20년만이었다.

◆'조원태號' 화물로 다시 날고, 아시아나 합병에 힘 쏟는다

조양호 회장을 이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을 이끌게 된 사람은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한항공 대표이사다. 3세 경영의 시작을 알리며 이목을 끈 가운데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두 차례 경영권 분쟁을 벌였지만, 결론적으로 조원태 회장이 승기를 잡으며 한진그룹의 명실상부한 리더가 됐다.

이런 와중에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해 이전에는 없던 봉쇄 상황에 처

했고 사람이 오가는 항공여객은 큰 타격을 입었다. 대한항공도 예외일 수는 없었지만 꾸준히 다져온 물류망은 어려움 속에 빛을 발했다. 대한항공의 2021년 4분기 화물사업 매출은 2조1807억원을 기록하고, 올해는 별도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78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3.4%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화물노선 매출은 2조1486억원을 거두며 호조를 이어갔다. 대한항공은 호실적 속에서도 화물 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지하며 빠르고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항공업계 리오프닝으로 여객 정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하나, 대한항공이 국내를 넘어 국외까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 합병 건' 때문이다. 2020년 11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22년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과 함께 대한항공이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두 항공사를 합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항공업계를 재편하고 항공역사를 새로 쓰는 시대적 과업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자"고 언급해 의지를 다지고 현재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대형항공사(FSC)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우리가 만날 항공업계의 미래는 달라질 전망이다. 또 FSC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재편도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객과 한국을 찾는 해외 이용객의 편의를 달라지게 할 것이다. 아직은 심사가 남아 두 FSC의 합병을 완벽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의 판도가 바뀌는 것만큼은 확실하기에 대한항공이 '수송보국'의 기업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대한항공 항공기

(주)한진 “글로벌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 기업 도약”

택배·물류·글로벌 사업 부문
2025년 매출 3.5조원 청사진

국내 안팎에서 택배 등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한진은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며 올해 택배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올려 업계 2위 자리를 확실하게 지킨다는 계획이다.

2022년 매출은 2조6640억원, 영업이익은 111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한진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3월 중장기 경영전략인 '비전 2025'를 발표했다. 마침 2025년은 (주)한진이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한진은 '비전 2025'를 통해 택배, 물류,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2025년 매출 3조 5000억원, 영업이익 1750억원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생활택배 시장 선도 ▲고객 맞춤형 종합 물류 솔루션

제공 ▲글로벌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역량 확보를 과제로 내놨다.

먼저 택배사업은 대전 스마트 메가 허브터미널 구축과 서브 터미널 대형·자동화 등을 통해 처리 능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터미널 신축, 확장, 설비 자동화에 약 5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물류사업은 부산·인천신항 터미널 인프라 확충, 글로벌 해운 동맹(얼라이언스)을 활용한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컨테이너 터미널 오퍼레이터'로 도약해나갈 예정이다.

신시장 개척과 신재생·수소에너지로 중심으로 한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택배·물류와 함께 핵심 분야인 글로벌 사업은 2025년까지 '1조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글로벌 사업은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 진두지휘한다.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맞춰 국제 특송 및 포워딩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래성장전략과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조 사장은 글로벌 감각을 100% 활용해 해외사업 강화를 위한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 대표는 지난 4월 초부터 보름까지 현장 점검차 미국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 시카고 등 한진의 미주 7개 거점을 돌았다. 한진은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에 총 11개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글로벌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법사위원장 합의 등 원구성 난항... '초당적 협력' 시험대

원구성 갈등에 후반기 국회 압운 민주당 '재검토' vs 국회 '반발'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강대강 대치

21대 국회의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원 구성 협상 합의안을 민주당에서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기로 한 지난해 7월 합의안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합의 파기 예고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조만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야 구도가 바뀌었고, 전반기 국회의장단도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 몫인 부의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지난해 원 구성 당시 국민의힘 몫 부의장 임기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개관례인 만큼, 민주당은 24일 당내 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단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부의장 후임을 선출하기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은 '알짜' 상임위원장 확보이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운영위·정보위·국방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관례로 맡아왔다.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이다. 알짜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위이어서다.

법제사법위(법사위)는 국회 내 주요 상임위에서 심중한 법안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본회의로 올리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법사위 검토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안을 법사위가 재검토해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원 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올해 5월까지 맡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올해 6월부터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

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합의안이었다. 여기에 21대 국회 출범 후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구조도 의석 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는 만큼, 지난해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1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윤호중-김기현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에 대해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논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 되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전반기 원 구성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전임 원내지도부가 후임 원내지도부의 법적인 책무와 권한까지 합의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을 미리한 것"이라며 사실상 여야원 구성 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구체적인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초당적 협력' 또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6·1 지선도 네거티브 공방 여전... 민생 이슈는 '실종'

李 출마 놓고 '불체포 특권' 화천대유 특검 등 공방 격화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

천계양을 후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의원 불체포특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이재명 위원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의

출마를 불체포특권과 연결 짓는 것도 자연스런 맥락으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고문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자 "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결

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고문은 지난 15일 인천 대공원 즉석연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벌인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박형준 부산 시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 대장동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을 합한 특검을 하자고 맞붙을 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누가 부패했는지, 진짜 도둑인지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냐"라며 "한 폰도 (개발이익을) 환수 못한 게 국민의힘 단체장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지선이 대선 직후 치러지는 대형 선거라는 점과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의 네거티브 득세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전통과 청년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

www.gijang.go.kr/tour/index.gijang

K 콘텐츠의 중심에서 만나는 최고의 인생 스팟, 여기는 기장입니다.

부산 도심 속에서 만나지 못한 특별한 순간을 빛과 물, 꿈의 도시 기장에서 꿈꿔보세요.



기정군



죽성드림세트장
SBS드라마 <드림>을 위해 지어진 장소인대는 기장대표명소이자 일출명소

대변항
MBC드라마 <소림왕후>와 영화 <신궁> <보안관>의 촬영지

아트인오리
무인커피 coffee
오리공작소 Art Studio
공작조면 Noodles

임랑해수욕장
기장 8경 중 하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제단이 애달미 명소

기장 아트인 오리
예술촌이 형성되어 있는 기장 대동마을 내에 위치 무인커피, 전시관 등 감성사진 명소

이חס산숲
영화 <군도>, SBS드라마 <더킹: 영원한 군주> 등 다양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대나무 숲

“30살도 어린이보험 가입”... 손보, 연령 낮춰 신규고객 확보

고객 확보 통해 자본건전성 개선
납입면제 혜택·신규 담보 등 확대
롯데손보, 35세까지 가입 가능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가 어린이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입연령을 대폭 확대하면서다.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는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최대 35세까지 확대 중이다.

먼저 삼성화재는 오는 18일 ‘삼성 꿈담은 자녀보험(무배당)’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상품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게 가입 나이를 30세까지 확대했다.

이 상품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재해 보장까지 성장기부터 성인에게 필

〈일반 보험상품과 무해지상품 비교 예시〉 /금감원

구분		일반상품	무해지 상품(50%형)
한급금	납입중	100% 지급	미지급
	납입후	100% 지급	50% 지급
월보험료		63,000원	38,000원
해지환급금	보험료 납입중	1,000만원	0원
	보험료 납입후	2,000만원	1,000만원

해지환급금이 일반상품대비 50%

요한 25대 핵심 보장으로 구성했다. 더불어 15세부터 30세가 기존의 성인전용 상품 가입 시 성인 인수 기준을 적용 받아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별도의 어린이전용 인수 기준을 적용해 가입이 쉬워졌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도 지난 17일 15세에서 35세의 청소년과 성인이 가입 대상인 ‘렛:플레이(let:play) 자녀보험II 토닥토닥’

을 출시했다. 어린이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면제 혜택과 신규 담보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 자사 상품의 납입면제 대상인 일반암·유사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에 더해, 상해·질병 50% 이상 후유장애와 양성뇌종양·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의 경우도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토닥토닥 자녀보험은 35세 어린이도 부담 없이 가입

할 수 있도록 납입면제 혜택과 신규 담보를 대폭 확대해 구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D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30세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손보사가 속속 어린이보험 가입 연령을 높여가는 데는 젊은 고객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눈치까지 더해지며 어린이보험 판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우려해 왔다.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해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자칫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

한 상품(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리적인 해지율,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을 파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자본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 상품을 파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사실 무해지·저해지형 상품을 팔게 되면 회사 자체는 보험을 싸게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보험사들의 신계약 가치나 내재 가치에는 좋지 않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까지 유지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어린이보험을 선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3+2 유연근무제... 후유증 관리 프로그램

〈코로나〉

보험 브리핑
DB손보 공식 인스타 30만 팔로워
에이스손보, 직원 사무실 복귀 행사

DB손보는 공식 인스타그램이 지난 4월 30만 팔로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DB손보의 인스타그램은 자사의 대표 SNS 채널이다. ‘가족사랑을 지키는 약속’이라는 컨셉 하에 젊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가족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이미지, 시의성을 반영한 정보성 카드뉴스, 투자 관련 꿀팁, 반려동물 탐구생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DB손보 인스타그램의 장점이다. DB손보는 이번 30만 팔로워 달성을 기념하며 ‘30만 팔로워 감사’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DB손보 관계자는 “인스타그램 30만 팔로워 달성 이벤트를 통해 고객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전해졌으면



DB손해보험 감사 이벤트.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사랑, 청춘응원 관련 이벤트 등으로 고객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스손보가 2년간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3일 출근, 2일 재택 근무 형식의 ‘3+2 유연근무제’로 전환한다.

에드워드 콧 사장과 임직원은 지난 16일 전 직원의 사무실 복귀를 기념하는 환영 행사를 사내에서 개최했다. 임직원 모두에게 자가진단키트와 손세정제로 구성된 건강 키트와 스낵박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3+2 유연근무제’는 대면 소통을 통한 협업을 도모하고 아울러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도입한 제도다.

삼성생명도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18일 ‘삼성 꿈담은 자녀보험(무배당)’을 출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꿈담은 자녀보험’은 성장기 어린이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게 가입나이를 30세까지 확대했다.

라이나생명은 임직원과 텔레마케터(TMR),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나생명 ‘코로나 후유증 관리 프로그램’은 사내 부속 한의원을 통해 진행한다. ▲1대1 맞춤 진단 ▲침·뜸 치료 ▲한약 처방 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백지연 기자

신한금융 아시아신탁 잔여지분 40% 인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 변경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16일 아시아신탁의 잔여 지분 40%를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9년 5월 아시아신탁의 지분 6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고 이번 잔여 지분 인수로 아시아신탁은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아시아신탁은 이달 말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한자산신탁’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시아신탁은 자회사 편입 후 신한(One-Shinhan)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 지난 2021년 신규 수주 계약액이 2018년 174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한 1897억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21년 신규 수주 계약액 MS 1위(1108억)를 달성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8년 242억원에서 2021년 758억원으로 같은 기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그룹의 비은행부문 주요 자회사로 발돋움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신탁의 완전자회사 편입으로 그룹의 부동산 사업부문 역량이 확대되고 나아가 One-Shinhan 관점의 그룹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손태승 회장, 팬데믹 이후 첫 해외 IR 실시

〈우리금융〉

달성한 재무적 성과 등 설명

우리금융그룹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이 17일 부터 2박 3일간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해외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당초 올해 1분기에 진행하려고 했으나 글로벌 오미크론의 일시적 확산으로 이달로 연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실시될 이번 해외 IR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손태승 회장은 한국 거시경제의 현황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이 지주사 전환



이후 달성한 재무적 성과는 물론 ESG와 디지털분야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주주친화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유럽, 홍콩 지역 등으로 IR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투자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신협중앙회

신규가입자 선물증정 이벤트

신협중앙회가 은행의 누적 가입자 수 160만명 돌파를 기념해 신규가입자 대상 경품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약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추첨을 통해 은행 신규 가입자 1000명에게 GS25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 회원 중 신협 핸드폰 서비스 신규 가입자 100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같은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은 상호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김정산 기자 kimsan119@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 위해 최선”
2009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부위원장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 소감을 통해 “국내외 금융리스크가 확대돼 경제, 금융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겠다”며 “새로 오실 금융위원장과 함께 손발을 맞춰 새 정부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 행정 개혁과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박



김소영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

/뉴스1

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은행 차문교수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연달아 컨설턴트를 지냈다. 2009년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일했으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을 맡아 활동했다.

/이승용 기자



모두의 기쁨, 그야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의 미래를 키우는 100개의 어린이집을 짓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국 곳곳에 특별한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100



전국 최대규모 상생형 청라 하나금융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슴반의 실제 야외 활동 모습입니다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하나캐피탈·하나생명·하나손해보험·하나저축은행·하나자산신탁·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하나에프앤아이·하나벤처스·하나펀드서비스·하나금융티아이·핀크

“우리 회사 어때요?”… MZ세대에 손짓하는 반도체업계

기업소식·직원 인터뷰 등 홍보활동
노출 늘려 취업 준비생에 인지도 ↑
임금인상·복지로 인력 지키기 온힘

“새로운 직원을 유치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한 반도체 관련 업체는 말했다. 반도체 업계가 인력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주요 양산업체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업계는 MZ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뉴스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뉴스룸에 단순한 기업 소식 뿐 아니라, 실제 임직원들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게재하며 MZ세대와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자사 기술은 물론 브이로그 형식으로 근무 환경과 일상까지 담아 회당 수만에서 수십만뷰를 달성하고 있다. LX세미콘도 유튜브와 함께 뉴스룸에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유튜브 채널은 'S로그'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직원들의 근무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은 S로그에 참여한 경계현 사장(왼쪽). /유튜브 채널 캡처

대기업 뿐 아니다. ASML과 램리스치코리아,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등 외국계 소부장 업체들도 블로그와 SNS, 유튜브를 통해 자사 사업과 직무 소개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국내 소부장 업체도 홍보 활동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주로 B2B 형태인 반도체 업계가 굳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힘을 쏟는 이유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최근 들어 반도체 시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업 확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도체를 전공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

에 신입 직원을 뽑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된 것.

반도체 인력난이 최근 일만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반도체 관련 전공자는 600~700명 남짓.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15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인력 양성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규제 때문에 증가폭이 제한적이었던 전언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주요 기업들이 인재 육성 확대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본격적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 5년여간은 공백



LX세미콘 뉴스룸에 연재 중인 웹툰. /LX세미콘

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장기적으로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이미 대기업은 관련 전공자와 대학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입사를 조건으로 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업체들이 홍보 활동을 시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직접 인재 유치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노출을 늘려 취업 준비생에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기업 홍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원자가 늘면서 적지 않은 흥

보 효과를 누렸다는 후문이다.

인재 이탈도 문제다. 영업 비중이 높아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도 연구·개발 거점을 만들면서 적지 않은 인재를 끌어가고 있다. 대만과 중국 등 국가에서도 여전히 '인력 빼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양적인 인재 확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는 대신, 논문 작성 숫자나 주요 저자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 일부 하향 평준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임직원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반도체 업계는 저마다 '역대급' 임금인상과 복지를 단행하며 인력 지키기 작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규모가 큰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업계 목소리를 묵살한 탓에 인력난이 현실화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IEEE ICC'서 6G 혁신기술 알린다

미래 기술 비전 공유·협력 논의의 장
'옴니팻'으로 新 모빌리티 시대 전망

LG전자도 6G를 비롯한 미래 신기술을 자랑한다.

LG전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EEE(전기전자공학회) ECC(국제통신회의) 2022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ICC는 IEEE 산하 통신 소사이터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행사다. 전세계 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 2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미래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LG전자는 커넥티드카와 6G,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사업 혁신 기술을 소개했다.

대표 전시품은 LG 옴니팻이다. 옴니팻은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로, 사무실과 운동,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전망할 수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6G 테라헤르츠 (THz)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력



LG전자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EEE(전기전자공학회) ECC(국제통신회의) 2022에 참가한다. 사진은 LG 옴니팻. /LG전자

증폭기 소자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FDR(Full Duplex Radio, 전이동 통신) 송수신 기술 ▲차량과 보행자 사이는 물론 차량과 이륜차 간, 차량과 차량 간 충돌위험을 알려주는 스마트 솔루션 'Soft V2X' ▲고객이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사물, 사용자 상황을 인지해 스스로 진화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 칩 등을 소개하기 위한 공간도 마련

했다. 17일에는 IEEE 펠로우인 LG전자 김병훈 CTO(부사장)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연결성과 소프트웨어 기반 설계의 기술 발전'을 주제로 키노트를 발표한다.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게임사, P2E게임 앞세운 반등 계획 '빨간불'

>> 1면 "테라·루나사태"서 계속

투자 유치 난항 가능성에 예의 주시

컴투스그룹이 발행하는 가상통화 C2X는 루나를 발행하는 테라폼즈의 블록체인 '테라' 메인넷을 활용해왔기 때문에 영향은 더욱 컸다. 메인넷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거래 등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 컴투스는 테라 메인넷을 떠나 다른 메인넷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컴투스그룹측은 지난 13일 공지를 통해 "C2X를 다른 메인넷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넷마블의 마브렉스(MBX)도 지난 6일 기준 6만 4222.85에서 9일 2만 4387.05원으로 하락했다가 이후 1만 1558.90으로 급락했다. 넷마블은 블록체인 자회사 마브렉스를 통해 MBX토큰을 상장시키고 암호화폐 지갑을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확장에 속력을 냈다. 뿐만 아니라 P2E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였다.

또 위메이드도 지난 7일 기준 3031.61원이었던 가격이 2519.00원까지 하락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에 위믹스달러라는 스테이블코인을 구축하고 자체 메인넷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하지만 메인넷이 테라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에 위메이드도 해당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올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인건비와 마케팅 증가로 실적 부진 성적표를 받으면서 P2E게임을 필두로 반등을 꾀하려던 계획에 비상불이 켜졌다.



/테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P2E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골자인데 게임 내 가상화폐 가치가 하락하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면 게임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P2E 게임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 유치도 어려워 질 수 있어 게임사들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예의를 주시하고 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테라 등 가상자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관련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역시 함께 휘청이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블록체인에 투자하던 게임사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수 없는데 외부 위기도 함께 찾아온 상황"이라고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루나사태 처럼 앞으로 더 다양한 이슈들이 생겨날 것을 대비해 대안책을 만들어 놔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번 사태가 블록체인, P2E 게임의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두고 볼수만은 없다"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확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 막닥뜨린 게임사들은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것. 정부의 앞서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이 상황을 전면 검토해야 하는 게임사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 풀가동

'체온풍' 등 관심 높아져

삼성전자가 무더위를 대비해 에어컨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전자는 2월부터 광주사업장 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2년형 무풍에어컨으

로 인기를 확인한 상태다.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에 이어 간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체온풍'까지 선보이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선호도 높다. 삼성전자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은 물론 냉매를 바꾸고 솔라셀 리모컨을 탑

재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아울러 이지케어 7단계와 청정 필터 시스템 등 내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관리도 쉽게하는 기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 외에도 천장에 매립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무풍 시스템에어컨도 지속적으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기반으로 국내 에어컨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LG유플러스, 업계 최초 NFT 커뮤니티 시장 진출

가상 오피스·동물원 등 직장인·키즈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니즈 명확한 고객 타겟 서비스
AR·VR 감상기술, AI기술 적용
협업·체험 등 '액티비티' 집중
현실 경험, 가상공간으로 이전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NFT (대체불가능토큰) 커뮤니티 시장에 진출하고 직장인·키즈에 특화시킨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U+가상오피스 ▲U+키즈 동물원 ▲무너NFT 3가지 서비스를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직장인, 놀이하듯 즐기는 학습을 원하는 어린이 등 니즈가 명확한 고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춘 서비스를 선보여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전무)는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현실에서 벌어졌던 고객 경험을 가상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머물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김민구 LG유플러스 서비스인큐베이터(Lab)장



김민구 LG유플러스 서비스인큐베이터(Lab)장 담당,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 최창국 LG유플러스 차세대기술랩(Lab)장 상무, 장준영 LG유플러스 IMC 담당(왼쪽부터)이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터Lab장(담당)은 "메타버스는 단일 기술로 융합 기술의 속성을 가지며 게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며 "우리는 콘텐츠에 실제 감각을 제공하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감상기술을 적용했으며, 인터페이스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규모가 지난해 957억달러(약 113조원)에서 오는 2030년 1조5429억달러(약 182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시

장에 뛰어들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메타버스를 '미래 고객 경험을 담은 생활 공간의 확장'으로 정의하고, 니즈가 명확한 타겟 고객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최대 리얼타임 3D 콘텐츠 개발 기업인 '유니티'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담당은 "디지털 공간에서 나를 대변하는 사람과 다른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커뮤니티 성격이 강하다"며 "유대감을 높임으로써 충성도 높은 사용자 집단을 얻을 수 있으며 방문

빈도와 체류 시간이 증가하며 유료 상품 구매나 중개 수수료를 통해 수익모델 다변화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아바타, 공간, 액티비티 등 메타버스의 구성 요소 중 소통·협업·체험 등 '액티비티'에 집중해 인터랙티브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가상오피스로 출근을 위해 먼저 아바타의 성별을 고르고 얼굴, 헤어스타일, 의상을 골라 '오늘의 출근룩'을 완성할 수 있다. 그 후 가상오피스로 출근해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선보이며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동료들과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태이블을 제공한다. 오늘이 내가 속한 팀의 대성님 생일이라면 스톱톡으로 가서 생일을 축하해주는 등 친밀한 대화도 가능하다.

특히, 사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프라이빗룸에 입장해 비밀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 잠그기 기능도 제공한다. 또 팀 회의를 진행할 때는 회의 예약은 물론 멤버들을 바로 소집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U+가상오피스를 사전 체험을 진행한 결과 참가자의 60% 이상이 실제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와 유사한 소속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가 또 이날 공개한 'U+키즈동물원'은 12세 이하인 알파세대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20여종의 공룡과 동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가상의 동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기술로 AI를 활용했다. 알파세대들이 친구들과 놀면서 배우는 학습효과를 주고 퀴즈를 풀면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AI 기술은 막상 들어갔는데 친구가 없을 수 있는데, AI가 친구처럼 등장해 대화를 해주게 된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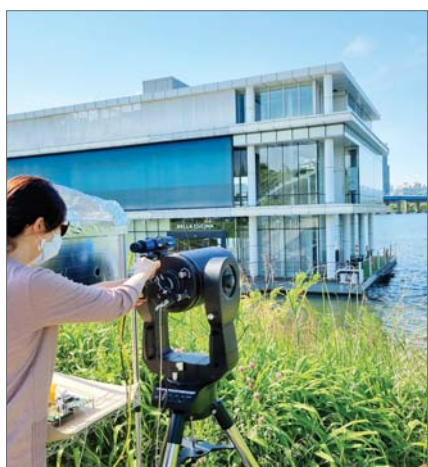
KT, 국내 최장거리 '1km 무선 양자암호 전송' 성공

장거리 정밀지향 핵심기술 확보
국방·항공 등 보안통신 기여 전망

KT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내 최장거리인 1km 구간에서 무선 양자암호 전송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자암호통신은 빛의 가장 작은 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담아 암호화해 전송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다. 송신자와 수신자만 해독할 수 있어 양자컴퓨터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보안성이 뛰어나다.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KT는 이번 한강 동작대교 북단에서 남단까지 1km 구간에서 무선 양자암호 전송에 성공해 자유공간에서의 양자전송과 장거리 정밀지향 등의 핵심 기술



KT 융합기술원 연구원들이 한강에서 무선 양자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KT

을 확보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300m 구간에서의 무선 양자암호통신 연구만 진행됐으나, KT는 다양한 대기 조건과

초정밀 지향의 어려움 등으로 유선보다 기술 난이도가 더 높은 무선 환경에서 기존 거리의 3배가 넘는 1km 구간에서 기술을 검증했다.

양자암호통신은 양자채널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유선과 무선으로 나뉜다. 유선 방식은 고정된 지점 간에 광케이블을 연결해 양자암호키를 생성하고 분배하는 반면, 무선 방식은 산악지형이나 도서지역과 같이 광케이블 설치 어려운 곳이나 광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이동체에도 양자암호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KT가 국내 최장거리에서 무선 양자암호를 전송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안정성과 보안성의 우려가 큰 국방·항공·우주 산업의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

이다.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드론 등의 도심형 이동체는 물론 항공기 및 위성 같은 고고도 장거리 이동체용 보안 통신에도 양자암호통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 KT는 자체기술로 유선 양자암호통신 솔루션을 개발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지속해서 이전하면서 국내 양자암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세계 최초 ITU 국제표준화와 세계최대 국제표준 채택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채윤정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건설기계, 인도서 4월 굴착기 판매 1위

현대제뉴인(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회사)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2008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월간 굴착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17일 현대건설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동안 총 382대의 굴착기를 판매, 1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17.3%에 그친 일본 업체를 제쳤다. 현대건설기계에 올해 인도시장서 1월 286대, 2월 382대, 3월 336대의 굴착기를 판매, 시장점유율 2~3위를 유지하며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일본 업체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 업체들과 치

열한 경쟁을 해왔다.

현대건설기계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형 굴착기 대상 특별 판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비 고장 등의 이슈에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CFT(업무협업체: Cross Functional Team)를 구성, A/S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또 인도 현지 푸네에 위치한 생산공장을 통해 맞춤형 장비를 생산하고 영업망을 확충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하며 월간 판매량 1위에 올랐다.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판매 외에도 부품 매출에서도 4월 한 달간 225만 달러

(약 28억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인도법인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인도 시장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인도 건설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는 현재 100조 루피(한화 약 1657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계획 '가티 사크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인프라 개발 목적의 예산을 지난 해보다 35.4% 증가한 7조 5000억 루피(약 124조원)로 할당할 바 있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영국의 건설장비 전문 리서치 기관인 '오프



현대건설기계가 인도 현지 푸네 공장에서 생산하는 14톤 크롤러 굴착기 모델.

하이웨이 리서치(Off-Highway Research)는 인도의 크롤러(Crawler, 벨트로 묶여진 차 바퀴) 굴착기 판매대수가 연평균 7%의 성장을 지속해 2026년에는 3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CJ올리브네트웍스 반델란드와 손잡고 스마트 물류 고도화

CJ올리브네트웍스는 글로벌 물류 설비 제조기업 반델란드(Vanderlande)와 손잡고 본격적인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여년간 물류와 유통의 다양한 시스템 및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동화 창고 및 풀필먼트(Fulfillment) 시스템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 물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물류사업 파트를 AI로지스틱스팀으로 확대해 신규 조직으로 개편했다.

AI로지스틱스팀은 물류센터 컨설팅, 엔지니어링, 물류 시스템 및 자동화 설비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토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 자동화 설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물류 설비 제조사 반델란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반델란드는 1949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기업으로 전세계 Top 20개 공항 중 12개 공항과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의 물류 설비를 구축해왔으며, 세계 물류 자동화 업체 Top5에 포함된 회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기반 물류 솔루션인 EliSSone을 통해 스마트 물류 자동화 컨설팅 및 구축을 통해 사업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해 주문 최적화, 다퍼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운송로봇 자율주행 등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저가매수 기회?... 테슬라·티큐·속슬 ‘줍줍’

해외주식 Click

기술주, 3배 레버리지 상품 등
美 증시 하락세에도 집중 매수

테슬라 2억5070만달러 '1위'
티큐·속슬·애플 등 뒤이어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5월 9~15일,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테슬라	2억5070만
2	PROSHARES ULTRAPRO QQQ ETF(TQQQ)	1억7102만
3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SOXL)	6474만
4	애플	2694만
5	VANGUARD S&P 500 ETF(VOO)	2620만
6	엔비디아	2355만
7	BMO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 (FNGU)	1944만

미국 기술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테슬라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티큐, 속슬을 집중 매수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등이 이유로 꼽힌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5월 9일~15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총 2억5070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최근 테슬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주가가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유동성 축소 압력을 받는 셈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5.88% 내린 724.37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2월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총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향후 회사의 자본 중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자사 제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순매수 2위와 3위 종목은 '티큐'로 불리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와 '속슬'로 불리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 3X ETF(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다. 같은 기간 1억7102만달러, 6474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티큐는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속슬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한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외에도 미국 기술주 애플(2694만달러)과 엔비디아(2355만달러)가 각각 순매수 4, 6위를 차지했다.

배당주 ETF인 벵가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ETF(VOO·VANGUARD S&P 500 ETF)와 아이셰어즈 코어 S&P 500 ETF(IVV·ISHARES CORE S&P 500 ETF)는 순매수 5, 8위에 등장했다. 각각 2620만달러, 1567만달러가 유입됐다.

VOO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시장에서 엄선된 50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안정적인 실적 좋은 기업들을 꾸준히 편입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성장률도 5%가 넘는다. 블랙록자산운용이 운용하는 IVV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SPY에 이어 두번째로 거래 규모가 크다. SPY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기술주 10개 종목의 주가를 3배로 추종하는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인덱스 3X ETN(FNGU·BMO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과 미국 기술주 15개 종목의 주가를 3배 추종하는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이노베이션 3X ETN(BULZ·BMO MICROSECTORS FANG INNOVATION 3X LEVERAGED ETN)은 7, 10위를 차지했다. 두 상품 모두 미국의 몬트리올 은행(BMO) 마이크로섹터스의 대표적인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다. 각각 1944만달러, 1173만달러를 순매수했다.

FNGU는 알리바바, 알파벳A, 아마존, 애플, 바이두,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 10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다. BULZ는 FNGU와 다르게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주식 없이 미국의 기술주만 구성돼 있다. BULZ는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MD, 페이스북, 알파벳A,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넷플릭스, 인텔, 세일즈포스닷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줌, 스퀘어 15종목이 담겨 있다.

이어 쿠팡이 순매수 9위 자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총 1221만달러가 유입됐다. 올해 1분기 쿠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금투협 엑셀 활용 기업평가 집합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엑셀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 집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엑셀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는 오는 6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 29일부터 개설된다. 학습목표는 재무제표 추정, 다양한 가치평가 모형 등을 통해 실제기업의 가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다.

특히 엑셀을 활용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필요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봄으로써 투자타당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

교육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및 대체 순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는 이벤트 신청 후 타사 해외주식을 신한금융투자로 500만원 이상 대체 순입고 및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타사계좌의 해외주식을 신한금융투자로 순입고한 금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2만원 스타콘, 1억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30만원 등 금액별로 리워드를 지급하고, 순입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 제공된다.

박미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2종 신규 상장 이벤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500(S&P500)배당귀족 ETF'와 'TIGER 미국나스닥넥스트100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 ETF와 TIGER 미국나스닥넥스트100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진행된다.

KB증권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상 ETF 각각 1억원 이상 거래 고객 중 선착순 5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상 ETF 합산 일 거래금액 1억원 이상 달성 시 문화상품권 2만원을, 3억원 이상 달성 시 3만원을 지급한다.

원관희 기자 wkh@

“임대차3법 개정하면 부작용 많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충분한 해결책 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큰 틀에서 임대차3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해결책)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다른 집을 구했다. 평수를 줄였는데 데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나 올랐다. 동일아파트 단지 내 이주가형 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서울형 고급 임대주택’ 공약 이행 시 공사비와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임대료 책

정은 평수가 아닌 소득 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더 많은 임대주

김대환 기자 kdh@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용역 입찰 공고 두산건설,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이다. 용역금액은 287억원이다.

사업규모는 1만1970㎡ 부지 면적에 연면적 약 2만1000㎡다. 지하 2층~지상 3층의 규모로 추진된다.

입찰이 마감되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이다.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이다. 현재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개공모를 통해 위촉한 전시감독(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과 함께 전시주제 및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박물관 전시기획안을 마련했다.

김대환 기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03억
유상증자로 미착공 PF 상환

두산건설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878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17일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실시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을 통

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차입금을 상환해 유동성 위험이 해소됐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서는 지난 4월 미착공 프로젝트의 유동성 위험의 해소와 지속적인 영업이익, 순이익을 달성한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

Musical Performance
Ari Arari

이 세상에 하나뿐인 뮤지컬퍼포먼스!

아리 아리리

Ari Arari

작/연출 윤정환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함과
정선의 노래를 담은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2. 5. 28(SAT) - 6. 6(MON)

평일 오후 8시 /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 5시

※5. 30(MON) 공연없음 / 6. 6(MON)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
TheaterYONG

예매처 | 인터파크 N 예약

주최 | 정선군

주관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Jeongseon Arirang Culture Foundation
국립박물관문화재단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하늘길 열린 프랜차이즈 광폭행보... 글로벌 'K외식' 깃발

국내시장 포화, 엔데믹 등에 해외사업 공격적으로 나서 BBQ·교촌, 해외점포 확대 빵·떡볶이 업계 등도 가세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이 이뤄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내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하자 해외에서 매장 수를 늘려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BBQ는 글로벌 사업에 힘주고 있다.

BBQ는 올해 매사추세츠주 노스 윈시, 캘리포니아주 월넛과 올랜드 하이츠에 연이어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총 2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K-푸드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BBQ 글로벌 외식 사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BBQ 측은 "전 세계 57개국에 진출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며,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5만 개 점포



교촌치킨 두바이 1호점 '데이라시타센터점' 오픈식을 기념하는 모습. /교촌에프앤비



대만 타이페이시의 BBQ 매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제너시스BBQ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진출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BBQ는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외식 기업인 와타미와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일본 외식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2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류 붐을 통해 브랜드가 알려진 만큼 올해 100호점 매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BBQ 측에 따르면 도쿄, 오사카, 치바, 사이타마, 시즈오카 등 일본의 다양한 지역에서 매장 오픈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교촌치킨도 해외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중동과 미국 시장 확장에 주력한다.

2006년 미국을 시작으로 2013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MF(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며 해외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교촌은 4월말 기준으로 미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두바이 등 6개국에서 6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은 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교촌은 최근 미국 하와이에도 매장을 오픈했다. 향후 5년내 해외 매장수를 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떡볶이 무한리플 프랜차이즈 두끼는

해외 진출 7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다. 베트남,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총 7개국 100개 매장을 달성했다. 2016년 대만 1호점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현재 미국 동부지역과 호주 현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파트너와 함께 신규 매장 오픈을 준비 중이며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글로벌 영토 확장에 공들인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푸레주르는 2004년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몽골·캄보디아 등 6개국에서 3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

이다. 해외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가운데 드물게 미국에서 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중동·유럽 등으로 영토를 넓히는 중이다. 현재 7개국에서 44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04년부터 진출한 미국과 중국에서는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섰다. 두 나라의 가맹점 비율은 각각 70%, 80%에 달한다.

파리바게뜨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제3의 글로벌 전략 지역으로 동남아를 점찍고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현지 파트너사인 HSC그룹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캄보디아 프놈펜에 1호점을 냈다. 또 같은해 11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선보인 인도네시아 1호점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600명을 넘고 매출은 개점 전 예상치의 3배를 웃돌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캐나다와 영국에 매장을 내기 위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외식 시장의 포화와 엔데믹 전환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쌍용차 토레스 티저 이미지.

쌍용차 명운 걸린 '토레스', 정통 SUV 구현

신차 '토레스' 티저 이미지 공개 무쏘처럼 강인한 정통 스타일링 차박 등 아웃도어 라이프에 제격 토레스 앞세워 경영 정상화 속도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무쏘DNA'를 계승한 신차 '토레스'를 공개했다.

쌍용차는 프로젝트명 J100으로 개발해 온 신차의 차명을 '토레스'로 확정하고,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토레스는 무쏘처럼 정통 SUV 이미지에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쌍용차 고유의 헤리티지 '강인하고 안전한 SUV'를 바탕으로 새롭고 모던한 정통 SUV 스타일링을 적극 구현했다.

토레스는 세상의 끝, 남미 파타고니아 남부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절경이라 불리고 있는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따왔다. 이 지역은 유네스코의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죽

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대 낙원으로 꼽히며 세계 모험가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힌다.

사측은 광활한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토레스를 통해 모험과 도전정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구현한 정통 SUV라는 의미에서 차명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티저 이미지로 공개된 전면부는 버티컬 타입의 라디에이터그릴이 적용돼 강인하고 와일드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후면부는 스포어 타이어를 형상화한 테일게이트 가니시(무늬)를 적용해 정통 SUV 이미지를 연출했다.

또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공간 활용성을 갖추고 있어 캠핑·차박(차+숙박) 등 레저 활동에 모자람이 없어 도심형 SUV와 차별화된 정통 SUV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사측은 자신했다.

특히 쌍용차는 토레스 출시와 함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

이다. 쌍용차는 이날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토레스의 성공적 론칭을 통해 판매 확대와 함께 한층 더 빠르게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대리점협의회와 토레스의 성공적 론칭 및 판매 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쌍용차는 올해 1분기에 영업손실 309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847억원)보다 손실액이 538억원 줄었다.

쌍용차 관계자는 "세분화 돼가는 SUV 시장에서 토레스는 준중형 SUV 코란도와 대형 SUV 렉스턴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레저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개발해 실용적이면서도 고객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차는 다음 달 토레스의 사전계약을 개시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출시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아이오닉5, 美서 우버이츠 '자율주행 배송'

모셔널, 우버와 손잡고 배송 '시동' 자율주행차 신뢰성 등 혁신 기대감

현대자동차그룹과 미국 애플티브의 합작회사인 자율주행 기업 모셔널이 우버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서 우버이츠 고객을 위한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모셔널의 완전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사용된다.

모셔널은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우버와의 파트너 협력을 체결해 자율주행 배송 시장 진입을 알렸다. 모셔널과 우버는 자율주행차의 높은 안전성, 비용효율성, 신뢰성을 통해 배송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자율주행 기준 레벨 4에 해당하는 모셔널 차량이 배송에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셔널과 우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자동화 배송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으로 향후 사업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모셔널은 현대차 아이오닉5를 자율주행 배송이 가능하도록 개조했다.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식당과 소비자 사이의 모든 접점을 수개월 간 연구했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했다.

가맹점 직원은 자율주행차가 도착하면 알림을 받고 지정된 픽업 장소에서 주문받은 음식을 특수 설계된 뒷좌석 칸에 싣게 된다. 이후 차량이 배달 장소에 다르면 고객은 알림을 받고 우버이츠 앱으로 자동차 문을 안전하게 잠금 해제한 뒤 주문한 음식을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셔널과 우버는 향후 기술 통합, 소비자 수요, 사용자 편의, 자율주행 배송 기능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가 진행되면 보다 원활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모셔널의 자율주행차의 광범위한 활용 사례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성운 기자

제주항공 "여름휴가 몽골로 떠나세요"

제주항공이 올 여름 여행지로 몽골을 추천했다. 최근 몽골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최대 90일까지 무사증 방문을 승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분석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운수권 배분에서 몽골 취항 권리를 획득한 바 있다.

몽골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를 대폭 완화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여

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또 필수였던 비자 신청 의무까지 없었다.

올해 여름부터는 우리나라와 몽골을 잇는 하늘길 또한 대폭 넓어졌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몽골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력적인 여행지로 입소문이나면서 많은 한국인 여행객들이 찾던 곳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오랜 숙원” 中企, 정치권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잔걸음

중기중앙회, 국힘 정책위와 토론회 조정협의 의무제와 결합 노력 필요
 김희장 “제값 받아야 혁신역량 성장”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정치권은 공동으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송실대 송창석 교수는 “기존의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기존의 조정협의 의무제와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앞으로 더욱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빈번해질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회장(왼쪽 3번째)이 성일종 의원(왼쪽 4번째)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망이어서 이참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을’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일감을 받는 하청 중소기업들이 원청 기업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을’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제시해 대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올려달

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별도의 요청 없이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이는 위탁기업(원청)과 수탁기업(하청)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의무’가 발생한다.

조정협의 의무제가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사후 지원 성격이 짙다면, 연동제

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을 위탁·수탁기업이 분담하는 등 ‘손실보상’ 성격이 강하다.

송창석 교수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는 ‘협상력 균형’이 핵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 오르거나 내릴 때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계약 후 추가 협상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납품단가 연동비율은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해 잔걸음을 걷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한 국민의힘 김정재·한무경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 촉진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위탁기업 발급 약정서에 주요 원자재 종류·가격 기재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 포함 ▲주요 원자재 가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시 약정서에 정한대로 납품대금 조정 지

급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방법 약정서에 기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정 거래위해 표준 약정서 작성·사용 권장 ▲원자재 기준 가격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시 위탁기업이 추가 발생 비용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 ▲중기부 장관이 추가 비용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스타트업 430곳 기술개발 돕는다

1년간 최대 1.2억 R&D 비용 지원
 전년 184개사 대비 지원 2배 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첫걸음) 과제에 스타트업 430개사를 선정했다.

이는 전년(184개사 지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창업 7년 이하 이면서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디딤돌 사업은 중기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한 기업에 연구개발비를 지원

한다. R&D 초보 스타트업에 1년간 최대 1억2000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한다.

뽑힌 430개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이 절반 이상(58.8%)을 차지한다. 이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59개사(13.7%),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46개사(10.7%) 순이다.

권역별 특징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정보통신(41.1%), 전기·전자(15.4%) 분야 순으로 선정됐다. 업력은 1년에서 3년 미만 기업이 121개사(47.8%)로 가장 많았다.

부·울·경의 경우 기계·소재(32.2%), 바이오·의료(22.0%)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

년에서 3년 미만 기업(55.9%)이 가장 많았다. 충청권은 기계·소재(28.3%), 바이오·의료(19.6%) 분야 순이었다. 영남권과 호남권은 기계·소재 분야, 기타권역은 정보통신 분야의 선정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벤처·스타트업의 지난해 고용 증가율은 전체 기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벤처·스타트업이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진공 적극행정으로 中企 규제애로 해소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가칭)’를 통한 전방위적 규제개혁을 공공기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다.

중진공은 17일 오전 경남 진주 본사에서 2022년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중진공이 적극행정으로 발굴한 8건의 규제사무를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원 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진공이 직접 투자하는 전환사채 및 우선주 인수기업 대상 투자자(중진공)사 전동의 사항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중진공이 직접 해결 가능한 규제의 개선방향을 심

의하는 기구다. 과거엔 규제애로를 겪는 기업이 규제 해소 필요성을 직접 입증해야했다면 지금은 규제를 만든 중진공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규제는 곧바로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정부 부처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중진공은 위원회가 구성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심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초 기관 사업 전반의 규제요인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개선 대상 규제요인 판단기준을 7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환경규제 ▲차별규제 ▲기준규제 ▲갑을규제 ▲비용규제 ▲문서규제 ▲기타규제 등이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사무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Emons

CJ대한통운, 페플라스틱 파レット 추가 제작

에몬스, 새 CI 공개

에몬스가 회사의 얼굴인 CI(Corporate Identity)를 바꾸는 등 리브랜딩에 나섰다. 이를 통해 단순 가구 판매에서 벗어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공간 제안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에몬스에 따르면 ‘요즘 감성, 요즘 공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트렌디함을 강조한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정립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 43년간 쌓인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고객의 감성을 섬세하게 읽어내며 공간에서의 삶의 가치를 제시하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인도네시아 물류 현장에 도입

CJ대한통운이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파렛트를 2차 출고하며 친환경 재생 파렛트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반 파렛트와 비교해 성능이 같을 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도 비슷한 수준으로 양질의 페플라스틱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일반 플라스틱 파렛트를 대체할 수 있어 주목된다.

CJ대한통운은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탄소ZERO 파렛트’ 400개를 추가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5월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으로 제작한 탄소ZERO 파렛트 300개를 자사 물류센터에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2차 출고한 친환경



CJ대한통운 직원이 페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페플라스틱을 선보이고 있다. /CJ대한통운

재생 파렛트 400개는 추후 CJ대한통운 인도네시아 소재 물류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ZERO 파렛트는 락앤락의 자투리 플라스틱을 재료로 파렛트 제작 업체 ‘상진ARP’의 그린 신기술이 합쳐져 탄생했다.

/김승호 기자

어린이 경제교육 돕는 ‘아이부자카드’ 출시

교원그룹, 하나은행와 맞손

교원그룹이 어린이들의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하나은행과 손잡고 ‘아이부자카드’를 출시한다.

이는 지난 3월 하나은행과 체결한 키즈 금융 교육 및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일환의 첫 프로젝트다.

17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구몬학습’과 ‘아이캔두’는 아이 스스로 경제관념을 키우고 용돈 관리를 통해 건전한 소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이부자카드를 제작했다.

아이부자카드는 아이부자앱에서 모은 용돈을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다. 부모와 약속한 독서, 심부름, 집안일 돕기 등의 활동을 완료한 후 인증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면 용돈을 받아 계획성 있는 소비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교원그룹은 아이부자카드를 통해 경제관념 형성 외에도 공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학습 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보상으로 용돈을 지급받아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이정식 “노사, 경제주체로 사회적 역할 다하도록 여건 조성”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찾아 현안 경청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당부
경영계, 중대재해법 규정 개정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모호한 중대재해법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경총 회관에서 이정식 장관을 만나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보완 움직임에 노동계가 우려를 나타내는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이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

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국정과제 등 고용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

서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전날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제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밀키트, 동일메뉴라도 영양소 차이 최대 6.7배

소비자시민모임 25개 제품 시험·평가
나트륨·포화지방 1일 기준치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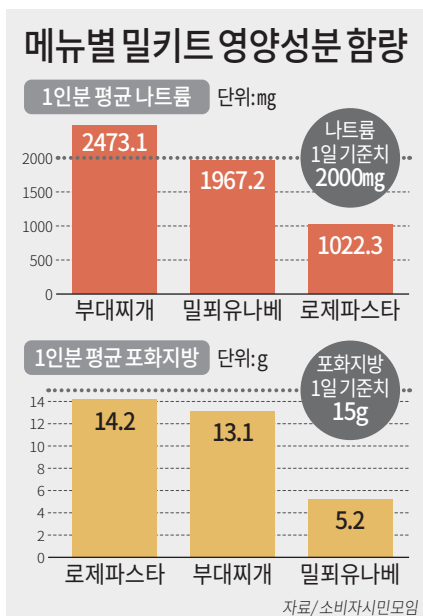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 수요가 증가하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고 제품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17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10개), 밀피유나베(8개), 로제파스타(7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이 세트 구성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맛벌이 가정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1882억원인데, 2025년엔 7253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 결과, 밀키트 25개 제품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의 최저 37.3%(745.7mg, 마이세프 슈림프로제파스타)~ 최대 159.4%(3188.5mg, 피코크 오맹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로 부대찌개 7개, 밀피유나베 4개 등 11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메뉴별 밀키트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가 123.7%(2473.1mg)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밀피유나베(98.4%), 로제파스타(51.1%)로 나타나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제품의 1인분 포화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최저 10.7%(1.6g, 마이세프 밀피유나베) ~ 최대 165.3%(24.8g, 흡스토랑 바이 애슬리

쉬프 비스크 로제파스타)로 이 중 부대찌개 4개, 로제파스타 2개 등 6개 제품은 1인분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메뉴별로 로제파스타와 부대찌개의 경우 한 끼 식사로 하루 기준치에 가까운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

열량은 1인분 하루 섭취 참고량(2000kcal)의 최저 14.7%(심플리룩 밀피유나베)에서 최대 45.4%(공공 옛날식 부대찌개)로 최대 3배 차이가 났고, 메뉴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메뉴라도 제품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 함량 차이가 컸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경우 제품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25개 제품 중 6개만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다.

5개 제품은 전체 또는 구성물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거나, 표시상의 구성물이 실제 제품에 없는 등 표시와 실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의 올해 3월 가격은 4개월 전인 전년 11월 대비 5.9%~3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증가,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hys@

훈련 한번에 식대 수십만원 청구 초급간부 의욕 꺾는 육군 ‘셈법’

약 20일 훈련에 22만원 식대
불만제품 ‘전투식량 S형’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떨 흔들리는 초급간부들. 그들에게 군 당국이 수십만원의 식대를 청구해 군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일부 전투식량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내년부터 보급이 중단될 ‘전투식량 S형’이라 ‘군간부들에게 돈을 받고 재고처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불만살인 보급품, 간부입에 털어놓고 재고처리?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 응한 육군 A 간부는 “육군 과학화훈련 전투단(KCTC)을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참가했는데 약 22만원의 식대가 청구됐다”면서 “전투식량 S형은 기존 전투식량 2형의 민수형 제품을 도입한 것이지만, 이물질 검출과 식감문제로 장병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기간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부과된 식비는 22만 52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 끼 3330원과 4000원으로 책정된 조식과 중식을 각각 15끼, 3470원으로 책정된 석식 16끼와 군납가 3670원인 전투식량 S형이 15끼가 제공됐다. 그 중 ‘전투식량 S형’은 숙영훈련 5일간 제공됐다.

‘전투식량 S형’보급과 관련된 국민심문고 민원에 대해 2019년 3월 27일 군 당국은 “야외훈련간 반합과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급식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에서는 전투식량 S형 5종을 보급해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군장병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는 군사커뮤니티 ‘밀덕잡담’의 전예준 대표는 전투식량 S형에 대한 의문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전 대표는 “귀뚜라미

등 이물질이 검출되고 식감도 동결건조 방식의 내용물에 물을 부어먹는 기존 전투식량 2형보다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에도 군 당국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가입찰 높음... 책임과 부담은 일선 간부에게

국군의 고질병인 ‘보급품 최저가 입찰’로 발생한 불만제품을 군간부들의 입에 털어놓고 재고처리를 한 셈이다. ‘전투식량 S형’은 동결건조 방식의 전투식량 2형에 비해 보존기간이 짧은 단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군간부들은 “훈련 중에 보급되는 개념으로 먹는 전투식량 소모비용을 군간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차량 유류비, 탄약비, 기타 훈련준비 교보재 비용도 전부 떠 맡아야 할 판이다. 이런 푸대접을 하면서도 초급간부 지원율이 낮다는 우는 소리를 할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군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급식비 실비를 간부에게 부담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간부가 ‘영내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식사를 한 것은 문제지만, 이를 부풀려 지적인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민간기업도 출장 및 파견에 대한 식비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간부에게 한정해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미국을 비롯한 모병제 국가도 훈련 및 작전기간 보급되는 전투식량에 식비를 부가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지원된 식비는 9만원 남짓이었다.

때문에 ‘21세기 국군이 망국으로 치닫던 조선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센 비난도 나온다. 조선은 잡역과 병역(지방동원의 잡색군)을 부가하면서도 식비와 기타비용을 백성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아열대성 ‘푸른아시아실잠자리’ 파주서 발견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북상

아열대성 잠자리로 알려진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경기도 파주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남부 지역에서 서식하던 잠자리가 한반도 북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분포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측을 한 결과 열대·아열대성 곤충인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고 1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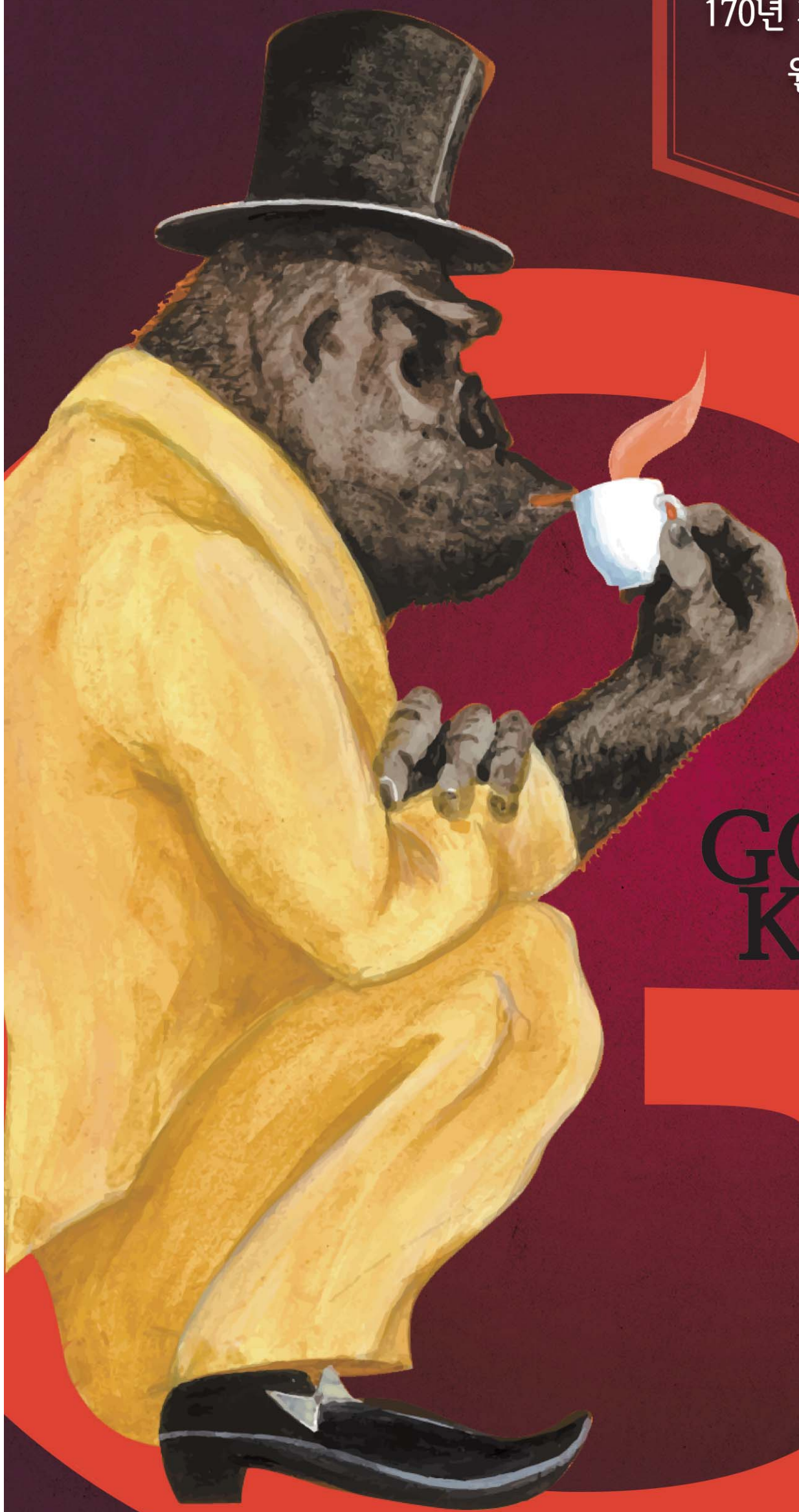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곤충으로 가슴 옆면과 꼬리의 여덟 번째 마디가 푸른색을 띤다.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고릴라를 통해 만나는 독일의 커피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원두별 개별적 최적의 로스팅



GORILLA KAFFEE

Since 1847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이철우 “포항, 차세대 배터리 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

〈경북도지사 후보〉

기업체 관계자에 업계 현안 청취 “향후 10년간 8배 성장할 것” 전망 “투자기업 행정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16일 포항 블루배터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에서 배터리규제자유특구사업자협의회 초청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철우 후보는 ‘포항을 차세대배터리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배터리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간담회 후에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현장투어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철우 후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의해



16일 이철우도지사가 포항 배터리 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업계 현안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8배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투자자와 경상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기업에게 행정적 지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포항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이후 배터리 소재-제조-리사이클링이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생태계가 구축되

었으며, 관련 인프라와 연구소 등이 모두 갖추어져 글로벌 선도를 위한 최적지이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1조60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할 이끌었고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향후 포항을 차세대배터리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배터리 융합지원 체계 구축 ▲이차전지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여 차세대 배터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에코프로 GEM, 해동엔지니어링, 솔루엠, 우전지앤에프, 에코프로 CNG, 피엠그로우, 뉴테크엘아이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오대송 기자 ods08222@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지역개발채권매입대상 대폭 축소

경상북도는 내달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채권매입대상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채권매입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채권 매입 대상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북=오대송 기자

‘현대 양궁월드컵’ 광주서 개막

올해 16번째로 열리는 현대 양궁월드컵이 광주에서 개막했다.

17일부터 6일간 광주국제체육공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리는 ‘광주 2022 현대 양궁월드컵(2차전)’에 38개국 38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며 광주에서 열리는 첫 국제대회로 오는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초전이다.

이번 대회에는 각 부문 세계랭킹 1위 등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

울산시-경남도-수자원공 등 협력 펀드 규모 200억... 생태계 활성화

울산시, 경상남도, 한국모태펀드,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조성한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가 1호 자(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울산·경남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울산시는 17일 비엔케이벤처투자가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의 1호 자펀드인 ‘비엔케이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점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펀드 규모는 200억 원이다.

이 펀드는 울산·경남 지역 소재, 규제자유특구 및 물 산업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으로, 기술력은 뛰어나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자생적인 지역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

모태펀드, 공공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 기반의 모펀드다. 동남권(울산·경남)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부산광역시, 충청권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조성됐다.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는 2021년 12월에 1차 출자공고를 통해 총 400억 원 규모의 2개 자펀드를 운용할 투자자로 비엔케이벤처투자, 경남벤처투자를 선정했다.

2024년까지(3년간) 매년 400억 원씩 총 1200억 원 규모로 6개 자펀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현재 운용하는 5개의 벤처펀드에 ‘동남권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더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출자를 꾸준히 추진,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더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백운산 치유의 숲’ 웰니스 관광지 선정

총 10km 산림치유 숲길

광양시 휴양림사업소의 ‘백운산 치유의 숲’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은 웰니스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남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및 육성 참여기관 공모를 추진해왔다.

‘웰니스’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로, 2000년대 이후 웰빙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등장했다.

2019년 6월 정식 개장한 ‘백운산 치

유의 숲’은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나이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福 다福’, ‘여우野! 놀자’ 등 체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참나무로 어우러진 ‘봉황돋움길’, ‘돼지꿈길’ 등 6코스 총 10km의 산림치유 숲길이 있으며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연 속에서 머무르며 힐링하는 관광객이 늘어난에 따라 지난해 치유의 숲을 방문한 체험객이 개장 이래 가장 많은 3,022명으로 나타났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목포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추가 보급

저소득층 60만원, 일반 10만원

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재시행한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1차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763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번 2차로 오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아 저녹스보일러 737대(저소득층 6대, 일반 731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보일러 1대당 지원액은 저

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 일반 10만원이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소유자의 동의 받은 세입자)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자이다.

신청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구매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접수기간 내에 목포시 환경보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내일부터 선착순 신청

부산시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2018년, 부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생업에 종사하느라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되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2년 이상 사업장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인원은 총 400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병원을 통해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



합천군 ‘햇양파’ 베트남 수출길 오른다

합천군과 합천유통은 2022년산 조생종 햇양파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열고, 본격적인 올해 양파 수출의 첫 단추를 꿰었다.

이번에 수출하는 첫 선적 물량은 총계약 300톤(13만 5000달러, 환화 1억 7250만원, 톤당 450달러)중 48톤(1200방/20kg)으로, 앞으로 발생할 추가 계약까지 포함하면 올해 햇양파 베트남 수출물량은 약 300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천(경남)=이도식 기자

냉동피자 패러다임 바뀌나... 화덕 특유 불향·풍미 '뽀뽀'

오뚜기 '화덕style 피자' 출시기념회

페페로니아볼라, 트러플풍기 2종 가정 내 도구로도 전문점 수준 완성 메뉴·품질 개선 '프리미엄화' 집중

국내 냉동피자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오뚜기가 '화덕style(스타일) 피자' 2종을 출시하며 자리 굳히기에 나선다.

냉동피자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HMR 수요가 늘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 해당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시장조사업체 칸타에 따르면 오뚜기는 냉동피자 시장에서 3년 연속 1위(3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CJ제일제당과 풀무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오뚜기는 경쟁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신제품 '화덕style 피자'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다.

오뚜기는 1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이



오뚜기는 1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이탈리아 음식점 마리오네에서 '화덕style 피자'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오뚜기

탈리안 음식점 마리오네에서 '화덕style 피자'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페페로니아볼라 피자 ▲트러플풍기 피자 등 신제품 2종을 현장에서 조리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며 제품의 특징을 알렸다.

새롭게 선보인 '화덕style 피자'는 직화 오븐에 구워 도우의 쫄깃한 식감을

살렸으며, 화덕 특유의 불향과 깊은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잘 숙성된 도우를 고온에서 구워낼 때 생기는 '에어버블'은 피자의 고소한 맛을 한층 더해준다.

이 가운데 '페페로니아볼라 피자'는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와 짭짤한 페페로니를 듬뿍 넣은 제품으로, 화끈한 스파이스 소스를 더해 매콤하면서 개운한 뒷맛을 자랑한다. 함께 선보인 '트러



오뚜기 화덕style 피자 2종

플풍기 피자'는 모짜렐라 치즈에 양송이, 새송이버섯을 더해 풍부한 식감을 살렸으며, 진한 트러플 풍미의 부드러운 머쉬룸 소스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한다.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오븐 등 가정 내 조리도구를 활용해 화덕 없이도 전문점 수준의 피자를 완성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올리브 오일, 타바스코 소스 등을 후첨해 즐겨도 좋다.

오뚜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식 수요가 증가하고,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냉동피자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만

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독보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화덕style 피자'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냉동피자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오뚜기는 같은 해 BASIC 피자 4종(불고기, 콤비네이션, 6포르마지, 올미트콤보)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뒤이어 1인 가구를 겨냥한 7인치의 'UNO 피자', 간편하게 즐기는 '떠먹는 컵피자' '사각피자' 등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오뚜기는 냉동피자 시장 선두주자로서, 그간의 연구개발 역량 및 기술력으로 냉동피자 맛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광과 도우에만 차별점을 둔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더 나아가, 메뉴 및 품질을 개선한 '프리미엄화'에 집중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변화를 리드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문화마케팅으로 유럽 적신다

피렌체 영화제 후원 등 문화행사 지원 참여 등 현지인 대상 시음부스 운영

하이트진로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인 대상의 문화 행사 지원에 나선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지인들에게 시음행사를 열어 참여 기회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이트진로의 2021년 유럽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4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JIN 엔터테인먼트가 독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순회, 주최하는 클럽이벤트 '코리아 나잇'을 후원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뮌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15개 도시에서 35회에 걸쳐 진행되며 클럽 내 참여시후레쉬와 에이슬리시즈를 판매하고 SNS를 활용한 소비자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독일 현지 슈퍼마켓 체인 입점도 확대 중이다. 올해 참여슬과 에이슬리시



지난 4월 8일 열린 제20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에서 현지인들이 청포도에이슬을 시음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즈는 독일 1위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와 세계 11위 유통업체 메트로의 일부 매장에 입점 완료했으며 에데카 전역 매장 입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이탈리아에서는 '제20회 피렌체 한국영화제'의 공식후원사로 참여했다. 개막식 리셉션에서 음식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과일리큐르를 제공하고 시음부스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국에서는 현지 레스토랑과 협업한

푸드페어링 행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 베스트 50 바'에 오른 '쓰리시츠 바'와 함께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로 카테일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 10일에는 미술랑 스타쉐프인 '주원'의 요리와 최고의 조합을 자랑하는 '진로카테일'을 제공하는 푸드페어링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으며 오는 10월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젊어진 홈플러스, 온라인 시장서 '펄펄'

예년 동기 대비 온라인 매출 120% 신장

홈플러스가 2030세대 공략을 위해 트렌드에 민감한 같은 세대 바이어에게 힘을 실어 주는 전략이 적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MZ 마음은 MZ가 잘 안다'는 기조 아래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MZ 바이어들이 전 과정을 주도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2030세대 바이어들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들이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2030세대의 수요를 포착해 큐레

이션 함으로써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이 예년 동기 대비 약 120% 신장했다.

홈플러스는 ▲홀리빙 ▲일상용품 ▲먹거리 등에 2030세대 바이어들을 전면 배치했다. 이들은 바이어들과 같은 나이대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1인 가구 트렌드에 걸맞은 상품군을 적극 배치했다.

집밥, 홈술 트렌드를 타고 먹거리 상품도 약진했다. 실제로, 즉석조리식품인 텔리, 냉동·냉장 간편식을 아우르는 신선가공 품목은 각각 430%, 110% 증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삼양식품, 그룹 내 제조사업 통합

삼양내츄럴스 제조부문 양수

삼양식품은 삼양내츄럴스의 농산물 공급 및 후레이크 제조사업 부문을 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삼양식품은 라면 제조 공정의 원료 공급부터 일관체계를 갖춰 글로벌 품질 관리는 물론, 그룹 내 제조 사업을 통합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고 삼양내츄럴스의 제조 부문을 양수하

기로 결정했다. 5월 1일자로 양수가 이뤄졌으며, 양수가액은 348억원 규모이다.

이로써 삼양내츄럴스는 제조사업 부문 없이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을 관리하는 지주사 고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삼양식품은 제조업 기반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삼양식품은 이번 사업 양수를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공장 준공에 맞춰 글로벌 품질 체계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선제적 방안임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비비고 치킨&고수만두' 국내 한정 판매

CJ제일제당 美 시판만두 매출 1위

미국에서 'K-만두'의 위상을 높인 비비고 만두가 국내 소비자들을 만난다.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비고 치킨&고수만두'를 국내에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비비고 치킨&고수만두'는 현재 미국 시판만두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대표 인기 제품으로, 닭고기와 고수를 선호하는 미국 현지 소비자를 타깃으로 2009년 출시됐다.

CJ제일제당은 대중성보다는 자신만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비비고 치킨&고수 만두와 코리안 BBQ만두/CJ제일제당

반영해 새로운 경험에 적극적인 MZ세대를 타깃으로 와디즈 펀딩을 통해 제품을 선보인다. 패키지 디자인 역시美프로농구팀 LA레이커스 유니폼 콘셉트를 차용해 기존 비비고 만두와 차별화를 뒀다. /신원선 기자

11번가 롯데마트 상품 당일배송

11번가가 17일부터 롯데마트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11번가의 장보기 서비스는 현재 이마트몰, 홈플러스, GS프레시몰의 당일배송 서비스와 SSG닷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번가는 이번에 롯데마트 당일배송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e커머스에서 유일하게 국내 대형마트 모든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롯데마트 당일배송은 전국 70여 개 롯데마트 매장과 전용배송센터를 통해 약 3만여 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롯데칠성음료 '오가닉' 신제품 2종 출시

'크니쁘니' 캐릭터로 더 유명한 롯데칠성음료의 어린이 주스 브랜드 '오가닉'이 물을 많이 마시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오가닉 과일워터 사과&배, 복숭아&푸룬' 2종을 출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기존 과채주스 라인

업 확대에 이어 물 대용으로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과일워터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 어린이 음료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오가닉 과일워터 사과&배, 복숭아&푸룬은 최소 3년 이상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유기농 야채와 과일로 만들어졌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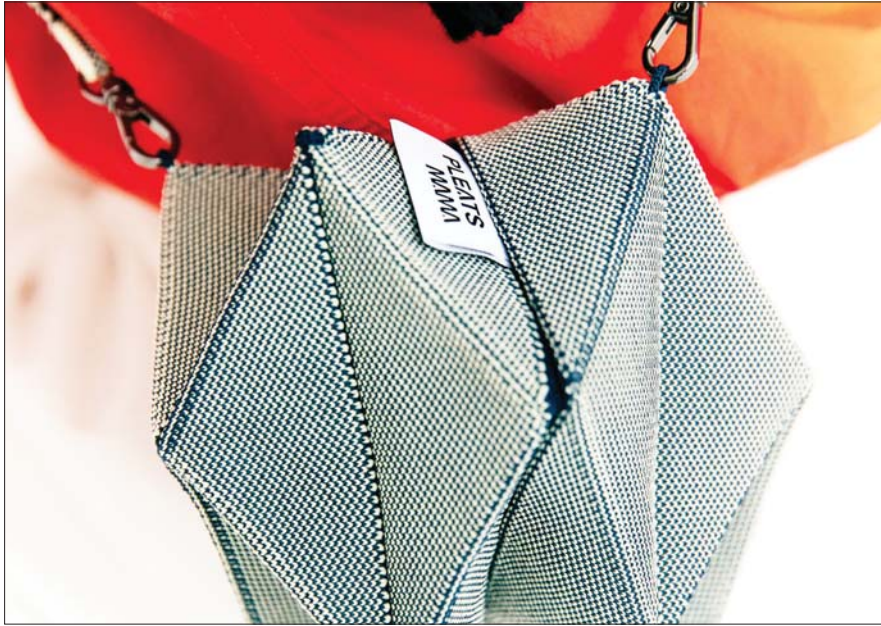
부드럽고 가볍고, 여름에도 OK!... 니트 패션 아이템 인기

여름 패션 아이템 소재류 다양화
플리츠마마, 니트백 판매 불티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매력

여름에 시원한 효과를 내는 냉감 소재가 인기 있다는 것은 옛말이다.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하고 부드럽고 포근한 감촉, 높은 신축성, 타 소재 대비 가볍다는 장점으로 니트류 패션 아이템이 잘 팔리고 있다.

리사이클링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는 17일 자사 니트백 제품군의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매출이 지난달(4월)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브랜드 니트백 판매량은 최근 2, 3, 4월 동안 매달 평균 35%씩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플리츠마마의 니트백 제품 판매는 여



플리츠마마 니트백인 '볼백' 크림 색상 이미지.

/플리츠마마

름이 성수기라서 타 계절 대비 여름철 매출이 높게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름

(6~8월) 니트백 판매는 타 계절과 비교했을 때 매출 비중에서 32%를 차지하

며 가장 높았다(봄 27%, 가을 28%, 겨울 13%). 2020년에도 타 계절 대비 여름(6~8월)철 판매가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였다.

리사이클 브랜드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플리츠마마는 지난 2018년 6월 니트백 제품군을 처음 내놓고 그간 30만개 이상 판매고를 달성했다. 플리츠마마는 니트 패션 아이템 인기에 관해 "다가오는 여름에 포인트가 될만한 유니크한 소재 가방 아이템을 찾는 수요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소비자들 이 가벼운 니트 소재를 찾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니트는 특유의 감촉, 가벼움이라는 소재의 특성이 있으며 탄탄한 짜임을 바탕으로 신축성도 좋다. 간단히 걸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멋진 인상을 줘 각광받고 있다. 캐주얼

이나 오피스룩 등 어떤 스타일에도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최근 니트는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쓰이고 있다.

의식 있는 소비의 시작을 제안하는 플리츠마마는 이러한 니트백의 강점을 극대화한 아이템을 다수 선보이며 니트백 대표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90년대 유행하던 복조리백을 연상시키는 공 모양의 '볼백'을 출시해 조그맣게 품을 현상을 빚었으며, 등에 바짝 붙여 매는 메신저백 형태의 아이템 '샤코슈백'은 위아래로 접었다 펼 수 있는 니트의 유연성을 살렸다.

브랜드 담당자는 "두 제품 모두 편안한 옷차림에 멋스럽게 댈 수 있는 원 포인트 아이템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에이블씨엔씨, 9분기 만에 흑자전환 성공

매출 564억, 영업이익 5억 달성
온·오프라인 운영 호조 등 영향

글로벌 뷰티기업 에이블씨엔씨가 9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564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8% 감소했으나 2020년 1분기 연결매출이 전년비 20% 감소한 것에 비하면 5.2%p 개선된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0억원 손실 대비 66억원 개선, 영업이익률이 10%p 폭으로 개선되며 2019년 4분기 이후 9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에이블씨엔씨 본사의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59억원 손실 대비 77억원 개선된 17억원 달성, 영업이익률 16.3%p 성장하며 모두 흑자 전환했다.

실적 턴어라운드 의 가장 큰 요인은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과 경영 시스템 및 온·오프라인 운영 효율화로 분석됐다. 에이블씨엔씨는 2017년 IMMPE에 인수된 이후 해외 시장의 문을 지속 두드리며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고정비 절감 및 원가 개선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미국과 일본 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법인 매출이 지속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채널인 아마존에 진출한 미국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1% 성장을 기록했으며, 현지 고객의 취향과 특성을 공략한 제품군 확장 및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온 일본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에이블씨엔씨는 올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ESG 경영을 바탕으로 비재무적 성과에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실을 다져간다는 계획이다. /원은미 기자

셀트리온, 류마티스 치료제 임상 3상 착수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셀트리온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악템라(Actemra, 성분명 토실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인 'CT-P47'의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 제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해 7월 CT-P47 임상 3상을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며, 글로벌 임상 3상도 이달 착수해 임상 결과 확보와 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임상 3상은 유럽 내 총 448명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47와 악템라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CT-P47의 오리지널 의약품 악템라

는 로슈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류마티스관절염 ▲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거대세포 동맥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악템라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4조5600억원(35억6200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다.

악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제제로 피하주사와 정맥주사 두 가지 제형으로 출시됐다. 셀트리온의 CT-P47도 오리지널의 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편의를 고려해 선택 처방할 수 있도록 피하주사와 정맥주사 두 가지 제형으로 개발 중이다. /원은미 기자

팜젠사이언스 매출 240억 '사상 최대'

팜젠사이언스(구 우리들제약)는 16일 공시를 통해 올해 연결기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240억원 대비 70.6% 급증한 410억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역대 분기 최고 매출액인 325억원(2021년 4분기)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2021년 전체 매출 1099억원의 37.3%에 달한다. 전년 1분기 14억원 적자였던 영업이익 또한 331.4% 증가한 32억을 달성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코로나19 쇼크를 벗어났음을 입증했다.

이같은 호실적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전문의약품의 판매가 늘었고, 사업다각화를 위해 새롭게 진출한 건기식 사업이 빠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실제 전년 1분기 2억원 가량이었던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43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1% 늘어난 19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요 품목군 중 두번째로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호흡기 제품 매출이 364% 증가했고, 소염제와 항생제도 각각 213.2%, 128.9% 성장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원은미 기자

신세계인터, 여성복 매출 두 자릿수 신장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
스튜디오 톰보이·보브 등 인기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보브, 지컷, 스튜디오 톰보이, 델라라나 등 자체 여성복 브랜드의 5월(5월 1~15일)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자체 패션 브랜드 스튜디오 톰보이는 지난 보름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신장했다. 간절기와 여름철 실내에서 활용하기 좋은 얇은 린넨 소재 등을 사용한 여름 재킷 류가 매출을 주도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시그니처 오버핏 재킷과 100% 린넨 더블 재킷으로, 스튜디오 톰보이 특유의 오버핏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그레이와 라이트 카키 색상, 베이지 색상 등 제품별로 이미 준비된 물량이 소진돼 1차 재주문이 진행됐다.

지난 4월 새롭게 론칭한 스포츠 라인의 반응도 뜨겁다. 스튜디오 톰보이는 최근 패션 시장 트렌드가 스포츠 중심으로 바뀌면서 운동 시에는 물론,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캐주얼 액티브웨어



스튜디오 톰보이 스포츠 라인 인기제품.

/신세계인터내셔널

제품을 선보였다. 론칭 한 달여 만에 일부 제품은 완판됐으며, 인기 제품의 경우 판매율이 60~80%에 육박하는 등 2030 세대의 취향을 적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복 보브는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비 12.3% 증가했다. 외출용 재킷, 티셔츠, 팬츠 등 아이템에 관계없이 다양한 제품들이 고르게 인기를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의 기존 인기 제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카이브 컬렉션 제품들의 판매가 좋았다. /원은미 기자

GS리테일, '요마트'로 장보기 즉시배송

요기요와 장보기 킷커머스 서비스

GS리테일은 17일 국내 대표 배달앱 요기요와 농축수산물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빠르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전국 즉시 장보기 서비스 '요마트'를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요마트'는 GS리테일의 전국 기반 대형 유통망과 요기요의 배달 플랫폼을 집약해 만든 요기요의 킷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로 삼겹살, 라면, 생리대 등 소량의 생필품을 1시간 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즉시 장보기 서비스는 초기 물류 거점 구축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크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한계 등으로 배송 지역 자체가 제한적이었다.

요마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배송망을 구축했다. 이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전국 350여개 GS더프레시 매장이 MFC(도심형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별도 물류 센터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 없이도 광역 배송망 이미 구축된 덕이다.



GS리테일이 17일부터 배달앱 요기요와 함께 즉시 장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GS리테일

이날 공식 론칭하는 요마트는 서울 노원 및 천안 서북지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내 350여 개 매장과 전용 MFC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취급 품목수(SKU)는 약 1만여 개에 달하며 신선식품, HMR(가정 간편식), 즉석식품, 잡화 등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취급한다. 더불어 '심플리쿱', '우월한우', '쿠켓' 등 기존 GS더프레시에서 판매 중인 인기 브랜드도 '요마트'를 통해 모두 주문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seoh@

세상에~이렇게 저렴한 분양가격에 놀랐습니다!!

5년 전 분양가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극대공영

계약면적 3.3㎡당 500만 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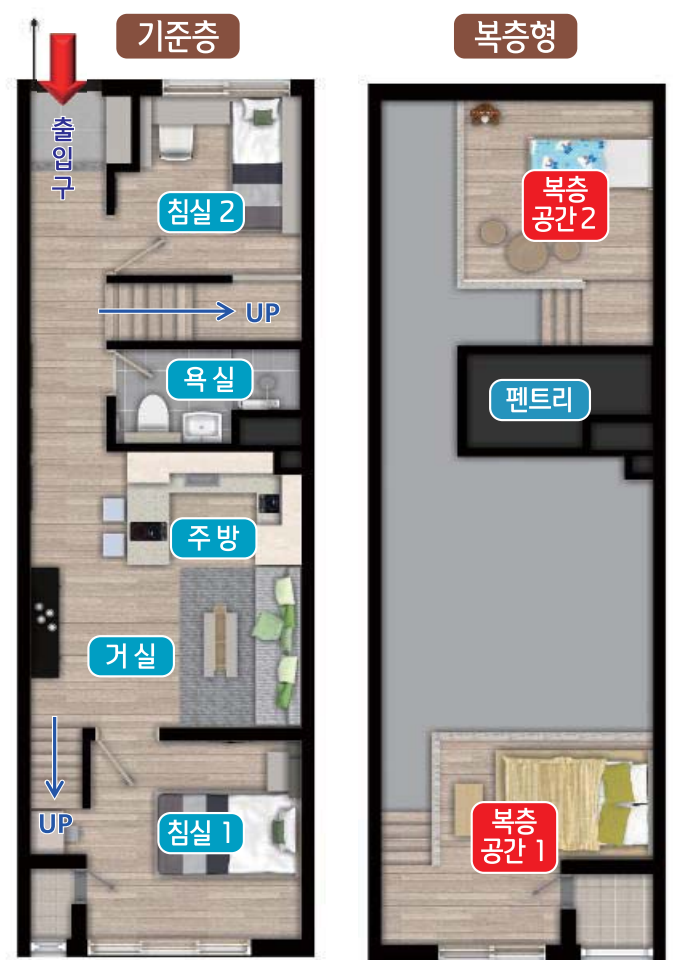
부산신항
로얄팰리스 1차



[전 세대 풀옵션 투룸 복층형 프리미엄 오피스텔]

87㎡B
464실

- 전용면적 47.9701㎡
- 서비스면적(복층형) 26.4464㎡
- 공급면적 66.0327㎡
- 주차장 20.9902㎡
- 계약면적 87.7571㎡



※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투자금 3천만 원대 투자로 월세 65만 원 확정

실투자금이란?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액과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VAT별도)

수익성

- 전 세대 투룸 복층 - 752실
- 주차대수 872대 (넘치는 주차장)
- 신항만·물류·녹산산업단지·트레일러 종사자 등 가덕 신공항 개발의 배후 수요 예상자
- 보증금 1,000만 원 65만 원 신규 수요 대기 중(넘치는 임대 수요)
- 주변 10km 이내 최근 3년 동안 공급 없었다.
- 주변 10km 이내 최근 2년 이내 공급 계획이 아직 없다.

환금성

- 5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다 보니 시세차익 발생, 최소 5천만 원~1억 원 정도
-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면적 3.3㎡당 500만 원대 분양
- 주변 땅값이 5년 전보다 2~3배 올랐다.
- 최근 현장에서 가까운 명지지구 오피스텔 분양가 계약면적 3.3㎡당 1000만 원대 분양 중

● 청약계좌: KB국민은행 079801-04-157925

● 예금주: KB부동산신탁(주) (청약금 100만 원, 미계약 시 전액 환불됩니다.)

1가구 2주택 제외 선시공 후 분양 5년전 분양가 잔금대출 75% 전세대 2룸 복층형 월세 65만 확정

분양문의 **1533-0512**

※ 선착순 계약자 혜택 : 취득세 전액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NH-아문디운용, 장미농원 농촌 일손돕기 봉사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 임직원들이 지난 4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장미화훼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광운학원, 금융교육 지원 맞손

미래에셋증권과 학교법인광운학원은 금융투자회사와 학교 법인 간의 다양한 협업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광 미키택시와 서비스 협업 맞손

카카오모빌리티가 광 최대 택시 브랜드 중 하나인 미키택시 서비스와 '광 현지 운송 서비스 협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 '이제 만남시다' 신규 TV 광고 공개

오비맥주가 일상 회복을 환영하고 다시 돌아온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응원하는 '이제 만남시다' 신규 TV 광고를 공개한다.

경동나비엔 가스보일러 국가브랜드경쟁력 3년 연속 1위

경동나비엔이 2022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가스보일러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7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가스보일러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보일러'에 걸맞은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D, 석·박사급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양성 나서

연세·한양·성균관대학원에 첫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설립 학비 전액에 연구비 등 지원

LG디스플레이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대학원에 국내 최초 채용 연계형 디스플레이 계약학과를 설립한다고 1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16일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연세대관계자들과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19일과 20일에 각각 한양대와 성균관대와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이를 통해 2023 학년도부터 매년 대학원별 10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선발해 육성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에는 재학 기간 학비 전액과 학비 보조금, 연구비 등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대학원에 국내 최초 채용 연계형 디스플레이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LG디스플레이 송상호 CHO, 윤수영 CTO, 연세대 명예인 공과대학장, 박승한 연구부총장

을 지원한다.

LG디스플레이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연세대 학부에 설립한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와 함께 학부부터 박사까지 인재 육성시스템을 구축했다. 2027년까지 200명 이상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공학적 전문지식과 산업현장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화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기, 전자, 물리, 화학, 재료 등 기초 기술과 함께 소자, 공정, 패널, 광학, 알고리즘 연구 등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 연구 협력력이 진행된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향후 차세대 기술혁신과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

목이 가능한 신개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학교 및 대학원에 디스플레이 전문학과를 신설함으로써 OLED를 포함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리더가 될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윤수영 CTO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혁신과 함께 자동차, 건축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다"며, "대학원 계약학과 개설로 전문성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동국제강, 소방공무원 자녀 위해 장학금 2억 전달

5년 간 누적 기부액 10억 육박

동국제강이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국제강은 17일 인천공장에서 '2022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식'을 열고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억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 전달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 설립된 복지기관이다.

동국제강은 2018년 대한소방공제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장학금 2억원을 기부해 왔다. 대한소방



17일 열린 '2022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식' 행사에 참여한 (왼쪽부터) 허석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 이형철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최상영 동국제강 인천공장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제회는 공무 중에 순직 혹은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자녀 및 거동이 불편한 자녀 등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하고 있다.

올해로 소방공무원 자녀 1700여 명에게 장학금 9억8000만원 가량이 전달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위니아 '딤체' NBCI 9년 연속 1위

위니아 '딤체'가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위니아는 '2022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김치냉장고 부문에서 딤체가 9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김치냉장고 '딤체'는 브랜드인지도 및 이미지, 구매 의도 등 주요 항목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김재용 기자@

아시아나항공, 청소년들 꿈에 희망 더한다

교육기부 봉사, 2년 만에 재개 마포중학생 24명에 직업 강연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로 2년간 멈췄던 교육기부 봉사단 활동을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마포중학교 학생 24명에게 항공 직업 강연을 열며 재개 후 첫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강연자로 나온 A380 조종사인 마대우 부기장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공부 방법 ▲운항 승무원이 실제로 하는 일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장점 등을 여러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강연을 펼쳤다.

두번째 강연자인 캐빈승무원 이미희 부사장은 ▲승무원 업무 이해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승무원이



아시아나항공 교육기부 봉사단 참여 임직원들이 17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란 직업의 장점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등 학생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구성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허정윤 기자

인사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장 지윤경 △국제협력담당관 이은호 △적극행정과장 예종원 △성과관리과장 안현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전력시스템연구팀장 유경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부산향

- 북향동합개발추진단장 남재현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항만개발과장 김규섭 △항만안전재생과장 황상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부총리 비서실장 신중범

부음

- ▲윤철수씨 별세, 윤주호(국세청 조사국 조사관)씨 부친상=17일 새벽 5시,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19일 오전 8시, 053-200-2500
▲양희진씨 별세, 정해봉(광주영어방송본부장·전 KBC이사)씨 장인상=17일,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201호, 발인 19일 오전 7시, 061-242-7000



LG헬로비전 지역채널 오리지널 예능 '팔도상회' 예고 스틸컷.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지상렬, 유투버 한소영, 이원일 셰프, 오세득 셰프.

LG헬로비전 전국 우수농가 살리기 오늘 '팔도상회' 첫방

LG헬로비전 지역채널이 전국 팔도 우수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LG헬로비전은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신규 오리지널 예능 '팔도상회'를 지역채널 25번과 SmileTV Plus(스마일티브이플러스)에서 첫방송한다고 밝혔다. '팔도상회'는 전국 팔도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에서 특산물을 판매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채운정 기자 echo@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투기판 우려되는 미술시장



홍경안
시시일각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미술품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작품을 구매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도 하향화됐다. 그중에서도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말)의 부상은 동시대 아트마켓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이다.

세계 최대 아트페어 주관사인 아트바젤과 후원사인 UBS가 펴낸 '2021 미술시장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 중국, 멕시코 등 10개국 고액 자산가 컬렉터 2569명 중 56%가 20~30대가 주축인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인 X세대가 32%로 뒤를 이었다. 20대에서 50대가 전체 컬렉터의 80%가 넘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키아프(KIA F·한국국제아트페어) 방문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키아프 서울 2021 리포트'에 따르면 처음 키아프를 방문한 53.5%의 관람객 중 MZ세대인 21~40세가 60.4%로 반 이상을 차지했다.

MZ세대가 시장의 주류가 되자 화랑과 경매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작품을 발빠르게 내걸었다.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미술 시장 출품작들이 다양해졌다. 소유와 공유의 개념이 보편적인 MZ세대는 미술품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2018년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동구매나 조각투자,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의 새로운 투자방식이 생겨났다.

MZ세대에게 미술품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투자해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그들에게 미술품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면서 취미가 돈이 되는 '상품'인 셈이다.

널뛰기하는 주식과 가상자산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것도 미술품 투자의 장점으로 꼽힌다. 미술품은 각종 세금의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수익률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투자 요소다. 작든 크든 투자 대비 이익의 비중만 놓고 보면 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부 거장들의 작품을 제외하면 그들이 선택한 작품들의 경우 대체로 예술성을 논하기 어렵다. 실제 MZ세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 없

어서 못 판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미학적, 미술사적 가치 면에서 한계가 있다. 때론 기초가 부족한 아마추어 작품이 부풀려졌다는 인상도 준다. 하지만 아트페어가 열릴 때마다 특정 세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작품을 싸쓸이하다시피 한다.

MZ세대의 미술품 구입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작가 소비' 외의 미적인 게 없다. 이는 작가 및 작품의 내용 따위엔 아무 관심 없이 작품가격과 판매 여부만 묻는 현실이 잘 증명한다. 지속 가능한 투자보다 주기가 짧은 단타 형식의 미술 투자로 돈만 벌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일부 미술시장 관계자들은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설픈 작가 작품에 '신선하다', '새로운' 등의 형용사를 남발한다. 심지어 점쟁이마냥 "이 미술품을 사 놓으면 오른다"는 식의 무책임한 전망을 내놓거나 거장의 꼬리표에 젊은 작가의 이름을 붙여 신화화하는 무리수까지 둔다.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미술시장이 작가를 보호하지 않는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자정 노력 없는 행태는 시장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이런 양태라면 오늘의 호황은 3년을 채 못 갈 것이 자명하다. /미술평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오명 벗으려면



기지수첩
구남영
(파이낸스&마켓부)

얼마전 외국인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화두였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것을 뜻하나 싶었지만, 각종 횡령 범죄에도 경영진이 책임 지지 않는 국내 경영 시스템을 조롱하는 말이었다. 이에 기자는 국내 횡령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 평균 4만6000건 정도의 횡령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무려 10년 사이 횡령 범죄는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과정 가운데 흥미로웠던 점은 횡령 범죄로 걸려든 인원 중에는 남성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횡령 사건의 피의자 중

남성은 평균 2만8000명에 이르지만 여성은 평균 7100명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여성'을 고용한다는 점이였다. 이는 남녀차별이 아닌, 외부적인 이익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여성'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금융사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컴플라이언스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관련 보고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다라도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여기에 기업개혁법 '사벤스-옥슬리법'을 기반으로 상장 기업들이 사내 회계감독위원회에 금융전문가 한 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영국도 고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 의무'로 설정했으며 금전 처벌도 상당하다.

반면 한국은 경영진에 대한 금전적 처

벌 관련 규정이 없다. 특히 처벌 수위는 개인에 대한 인적 징벌 수준에 불과하다.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법 제 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정도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으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국내 금융범죄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국내의 횡령 방지 방법으로는 '처벌'과 '통제' 두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처벌 수위를 강화하면 금융범죄의 사전 예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도 내부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횡령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은 배제된 채 개인의 경미한 처벌로 책임이 끝난다. 결국 피해는 사고와 무관한 주주에게 돌아간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18일 (음 4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어린 사람과 닮아 생기니 조심. **48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6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72년생** 승진하고 좋은 일이 있다. **84년생** 어제부터 시작한 일에 마무리가 작게 실리가 이어져도 감사함.
- 37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라. **49년생** 돼지띠와 계약이 잘 성사. **61년생** 간교함이 있으니 의지가 필요. **73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5년생** 변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여 일구어라.
- 38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있다. **50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62년생** 이사해도 재활동으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 **74년생**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자. **86년생** 이직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우물을.
- 39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51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격. **63년생** 아니라고 생각될 때 바로 잡아야 한다. **75년생** 주변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생** 주식투자 전에 먼저 공부를 시작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40년생** 오늘의 자식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52년생**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 **64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저절로 굴러온다. **76년생** 내가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88년생** 여행으로 지출이 많아지니 사전계획을 꼼꼼히.
- 41년생** 후배의 참석으로 모임이 즐겁다. **53년생**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65년생** 집안 청소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시간을 가져보라. **77년생** 무대위가 가면 그는 덕은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9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시작.
- 42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54년생**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 **66년생** 때 이른 욕심이 너무 과하여 낭패를 본다. **78년생** 나의 기술을 다른 사람도 인정. **90년생** 금할수록 돌아갈라 했으니 서두르지 말고 실타래를 풀자.
- 43년생** 자기진단 하지 말고 병원을 가보자. **55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다시 시작을 하자. **67년생** 횡재수로 재물이 온다. **79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91년생** 너 자신을 알라처럼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아니다.
- 44년생** 무지개를 쫓아나 잡지 않는다. **56년생** 거품은 사라지고 현실에 직면. **68년생** 삶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라. **80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92년생**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것을 느낀다.
- 45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하는 날. **57년생** 먼저 주는 것이 더 큰 것을 받는다. **69년생** 그동안 노력한 대가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 **81년생** 고통과 실패는 큰일의 밑거름이다. **93년생** 병도 약도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알라라.
- 46년생** 인생사 모란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58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70년생** 타인의 실수가 내게 덕이 되어 돌아오지만 어찌 편치 않다. **82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94년생** 불만이 있어도 차분히 고쳐나가도록.
- 47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59년생** 하나를 뿌리고 열 개를 얻는다. **71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메모하라. **83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95년생**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에 실망 말고 약속부터 실행하여.

김상희의四季 과거는 아름답다

문화재의 가치는 오래된 시간에 비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오래된 것은 낡고 버려져야 되는 거주장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복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이제는 사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돼서 쳐다만 보게 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만 해도 어느 집이나 한두 개는 있던 단판이도 그러하거니와 제대로 된 상취급도 받지 못하던 개다리소반까지도 귀한 전통품목으로 대접받고 있다. 봄꽃이 만연한 지난 휴일에 인사동에 나갔다가 다리 선이 날렵한 작은 소반 하나를 보게 되어 찾장을 하면 좋겠다 싶어 가격을 물어봤다. 주인이 부르는 가격이 무려 신입사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필자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간식을 담아 밀어주시던 소반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그냥 돌아서 나오는 필자에게 주인이 덧붙이는 말인즉슨 옷 칠을 한테다가 장인의 작품이란다. 이런 풍토가 조성된 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력이 몰라보게 성장하고 발달한 덕분이다. 6~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낙후 국이었던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도 어려워 우리의 전통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일제 때 그들은 한국적인 것은 무조건 촌스럽고 버려져야 할 후진 문화라는 인식을 주입시켰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내심 동경했던 그들은 귀중한 한국의 문화재 보물들을 빼돌리는데 전력을 다했다. 지금도 환수되지 못한 각 방면의 문화재와 유물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이며 조선 말기 제국주의 초기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 찬탈당한 한국의 문화자산을 그 나라들의 박물관에 가서 봐야하는 형편이다. 촌스러운 과거란 없다. 이제는 무조건 아름다운 시절이 되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스도쿠 365! 손호성 저 | 스토쿠 365 | 10,000원

	5	7				4	6	
			1					5
	2			4				7
		8		7		1		
		4		1			7	
			8					9
6				2		5		1
	9							

7		4				8		
				3			9	
3	7	1						5
							4	
		9						
2			5		3			6
	6			4				
		5			9			8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4	8	9	1	2	3	5	6	7
1	5	6	2	7	8	4	9	3
6	2	3	9	9	8	1	4	5
2	2	6	8	1	9	7	5	9
9	7	1	5	9	2	8	6	4
5	8	7	6	2	9	1	2	2
2	1	5	9	7	9	6	2	8
9	6	2	2	8	1	5	9	7
8	9	7	2	5	6	2	2	1

2	8	5	6	2	9	9	1	7
6	2	9	7	2	1	5	9	8
7	9	1	5	8	9	2	6	2
2	5	2	9	1	8	6	7	9
1	6	7	2	9	5	2	8	9
8	9	9	2	6	7	1	2	5
9	7	6	5	5	2	8	2	1
5	1	2	8	9	6	7	5	2
5	2	8	1	7	2	9	9	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기도 지역 주요 격전지 (수원·안양·군포·고양·성남·부천·의정부)

수원시 부장검사출신 토박이 vs 전 부시장 ‘도시전문가’

의정부시 보수·진보·무소속 3파전 **고양시** 4년만에 리턴 매치

“개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중략)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갔고...”

요새 젊은 층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J 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이 읍조리는 대사다.

경기도민들은 집에서 서울 강북과 강남의 사무실에 닿기 위해 평균 1시간 24분(2019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을 쓴다. 왕복인 경우 거의 3시간에 이른다. 진입할 수 없는 서울의 집값에 한번 허탈해하고, 날 밝을 때 퇴근해 어두컴컴한 밤에 귀가하는 삶의 반복은 경기도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교통·주거·교육·일자리 등 경기도민의 ‘민생 니즈(Need)’를 살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해결사’들이 오는 6·1 경기도 시장 선거에 나선다. 과연 어떤 후보가 경기도를 더 이상 흰자가 아닌 노른자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지 눈길을 끌고 있다.

◆토박이 텃밭 수원의 승자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 경기도 최대 인구 거주지로 경기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선거에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민선 3~4기에 당선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민선 5~7기에서 선출된 염태영 전 시장은 모두 수원 출생이다.

긴 출퇴근 시간 등 경기도민 상실감 GTX·신도시 지역 선거 관심도 높아 주택상수도 등 주민 재정비 목소리

민선 8기 수원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非)토박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 이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경북 포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김용남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아이 교육 정책 ‘수원쌤’ 도입 ▲수원 삼성선 지하철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 정책, 소통, 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 전 부시장은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 유치 ▲도시철도(1~4호



선) 및 서울 3호선 세류역 연장 ▲엄마야 똥통합돌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 지목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시장 선거를 도전하는 후보들도 주목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상수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은 최대호 시장(민주당)이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다.

평촌 학원가에서 ‘필탑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는 이번 선거에 맞춰 서울 서부선 광역철도 연장 정책협약을 군포·의왕 시장과 맺고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구도심인 만안구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필여 국민의힘 후보는 안양 최초 여성 시장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안양시의원 재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약사 출신인 김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협력해 ▲안양-분당-수원-동탄 축으로 첨단헬스케어 특구 지정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안양을 ‘헬스케어’ 도시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선보였다.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남시는 4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민주당에선 기재부 2차관, 인천시 경제부시장,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지낸 배국환 후보가 성남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안양시, 최초의 여성 시장 탄생 관심 성남시, 4선 의원-기재부 차관 대결 의정부시, 보수 분열로 판세 요동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도 한대희 시장(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하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 신도시특별법 추진위원장이 출마한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은 이재준 시장(민주당)과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4년만의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고양시장 선거엔 고양시의원 출신인 김혜련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총괄조직본부장과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은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에서 자웅을 겨룬다.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는 김동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강세창 전 의정부감당협위원장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보수 후보 분열에 의정부 시장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인 김동근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 ▲도봉차량기지 이전 추진 ▲GT X-C노선 조기 착공 ▲7·8호선 연장 및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도의원을 3선한 김원기 후보는 ▲주한 미군 공여지 활용 첨단 대기업 R·D 센터 및 친환경 서비스산업 유치 ▲8호선 의정부 연계(의정부~남양주) 확정 및 민락2지구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의정부시의원 출신인 강 후보는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의정부 보수정신이 특정인의 탐욕과 횡포에 휘둘러야 되겠나”라며 “부패를 청산하고 썩은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출마를 발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선유고차도’ 양화대교방면 철거...19일부터 전면통제
▲ 오세훈 “백지신탁 불복한 주식, 손해 보고 다 팔아” /사진 뉴시스



▲ 양대노총 “尹정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 멈춰야”
▲ 떠나는 정은경 질병청장, 이임식 없다...“직원들 인사만” /사진 뉴시스

▲ 성남FC 뇌물수수 의혹...경찰, 두산 건설·성남FC 압수수색
▲ 산림청, 어린이 시설 목조화사업 공모 통해 20개 어린이집 선정

재정지원제한대학 22개교 선정... 국장·학자금대출 제한

극동대·강원관광대 등 지정 2023학년도 수험생 주의 요구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교 일반재정지원 추가 '기사회생'

학생 총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정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따르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교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돼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총원율, 졸업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구분	정부재정지원 사업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유형 I	유형 II	일반	취업후 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일반대학·산업대학(4개교) 극동대, 대구예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전문대학(7개교)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II -일반대학·산업대학(5개교)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전문대학(6개교)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신·편입생 100% 지원제한		신·편입생 100% 지원제한	

/교육부

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총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

입생 총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완화했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충족지표 수가 3개인 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와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

대·창원문성대 등 1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로 지정됐다. 2023학년도 이들 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미충족지표 4개 이상 대학인 유형 II에는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지정돼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배제되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예원예술대·금강대·대덕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다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2025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대학 13곳을 추가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교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는데, 탈락하면 연간 40억~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서 중 일반대인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6개교가,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교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7개교 등 총 13교가 구제됐다. 이들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시, 외식창업 꿈꾸는 청년 지원 팔 걷어 “오성산 관광 개발 아이디어 찾습니다”

건대역 ‘청년국 비즈니스센터’ 오픈 오픈키친·촬영 스튜디오 등 마련

서울시는 이달 18일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보육 공간 ‘청년국 비즈니스센터’의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입구역 ‘건대맛의거리’ 인근(광진구 자양동 227-17)에 자리해 있다. 연면적 259㎡ 규모로 ▲조리 실습을 위한 오픈키친 ▲맛 테스트 및 커뮤니티 공간 ▲창업보육공간 ▲푸드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기수별로 창업 주제를 정해 심층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청년국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공유주방 /서울시

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공유주방 배달창업’을 주제로 1기 청년 예비창업자 1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8월까지 센터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기간 중 신호섭 셰프, ‘오늘에김밥’ 문영일 대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센터는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가 브랜딩과 디자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모의 투자설명(IR) 데모데이’, 컨설팅 결과로 탄생한 시제품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맛 테스트 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자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배달형 공유주방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단기 임대, 보증금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ik1@

인천공항공사, 6개월간 공모전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성산 절토지역을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

용유도의 주봉인 오성산은 해발 172m였으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공항 2단계 건설시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고도제한(52m) 이하로 절토됐으며 면적은 810,000㎡에 달한다. 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21년 8월 오성산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총 810,000㎡ 중 200,000㎡ 면적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610,000㎡ 절토지역을 공항과 연계해 환승객 및 외국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창의적인 제안 등을 적극 활용해 오성산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1월 15일(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공모분야는 참가자격 및 제안서 수준이 상이한 컨셉 공모 및 아이디어 공모 2개 분야로 구분된다. 공모 참가자는 1개 분야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분야에 따라 제출서류·제출방식·평가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공고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인천=김정근 기자 mirex@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남윤철 교사 장학금’ 수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제8회 남윤철 장학금’ 수여식을 16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윤철 장학금’은 교사의 사명과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한 고(故) 남윤철 교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장학제이다.

올해로 제8기를 맞은 남윤철 교사 장학금은 한국어교육학과 국내외 재학생 10명에게 전달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 방면 철거

내일부터 차량 전면통제... 11월 완료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을 이용하는 시민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철거 공사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주변도로로 우회 통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이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시설이다. 시는 고가차도 철거 후 도로 체계를 평면 교차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8일 (수)

음력: 4월 18일

수도권 날씨

15~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21 | 해질 / 19:37

연천 12/25, 동두천 13/26, 가평 10/25, 파주 12/24, 서울 15/26, 양평 12/27, 수원 16/24, 용인 16/24, 평택 12/26

백령도 13/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WHO “북한서 코로나19 빠르게 확산 위험… 즉각 조치 취해야”
- ▲ 1분기 태국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1.1% ↑ “코로나 규제 완화” [사진 뉴시스]

- ▲ 한·중 외교 통화... ‘협력 강화’ 기조 속 “신냉전 경계”
- ▲ 美 경기침체 대비 해야 할 일?... 현금 확보·꾸준한 투자 등



- ▲ 유엔, 리비아 트리폴리의 무장세력간 전투에 “우려”
- ▲ 위안화 기준치 1달러=6.7854위안 ... 0.03% 절상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라이프]
화덕 불향·풍미 '뽕뽕'
냉동피자 새 바람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움집 들어가 보고, 막대로 불 피워보고 선사시대로 '시간여행'을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토기, 석기 등 유물들이 노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학자 요코야마와 후지타가 암사리 한강변에서 다량의 토기와 석기를 수습했다. 이후 1957년 경희대학교에 의해 처음으로 간단한 발굴이 이뤄졌고, 196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됐다. 1968년 장충고등학교 야구부 훈련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선사시대 주거지가 드러나게 돼 대학연합의 발굴조사가 추진됐다. 1975년까지 수혈주거지, 빗살무늬토기, 어망추, 갈돌 등의 신석기시대 유물과 백제시대 유물들이 보고됐고, 2015년 유적공원의 시설 정비를 위한 시굴조사에서 신석기시대와 삼국시대 문화층이 발견됐다. 2018년까지 벌인 발굴조사에서 중심에 불자리가 있는 원형 움집 구조의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백제시대 주거지들이 중첩돼 나타났다. 특히 신석기시대 주거지에서는 암사동 유적 최초로 옥으로 만든 장신구와 흑요석재 등이 나왔다.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는 복원된 선사시대 움집들을 볼 수 있다.

/김현정 기자

되살아나는 서울 ㉮ '서울 암사동 유적'

◆암사동 출토 유물 전시된 박물관

지난 4일 기자는 기원전 5000~4000년경에 형성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문화 초기단계의 마을 유적을 만나 볼 수 있는 '서울 암사동 유적'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4번 출구에서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1.1km를 걸으면 나무 기둥을 엮어 만든 울타리가 쳐진 '서울 암사동 유적' 입구가 나온다. '빗살무늬 토기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곳, 서울 암사동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 목적지를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입장했다. 입장료는 만 19세~64세 어른은 1명당 500원, 만 7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1인당 300원으로 책정됐다. 입장권 뒤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거해 관람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울 암사동 유적은 하늘 위에서 보면 동쪽으로 나뉘는 깃발처럼 생겼다. 입구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유구보호각, 복원움집, 박물관, 선사체험마을이 차례로 들어섰다.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지나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으로 갔다. 전시관의 주요 유적은 암사동 유적에서 발굴된 빗살무늬 토기였다. 토기의 입술 부위에는 손톱 등을 찍어 눌러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빗금이 3~5열로 새겨졌다. 몸통 부위에는 옆으로 누운 'V'자를 여러 개 겹친 문양이 찍혀 있었다. 이 무늬는 생선의 뼈 모양과 비슷해 '어골문'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바닥 부위에는 몸통과 연결되는 빗살 문양이나 동심원 무늬가 그려졌다.

박물관 측은 "암사동 유적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빗살무늬 토기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약 6000년 전 암사동에 살았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 토기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새로운 문화 인류의 서막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암사동선사유적박물관을 찾은 한 어린이는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놀비빔(가로 막대를 오르락내리락 움직여 세로 막대를 회전시켜 불꽃을 얻는 것) 방법으로 불 피우는 체험을 하며 즐거워했다.

1925년 드러난 암사동 유적, 60년대 본격 조사 빗살무늬토기, 어망추, 흑요석재 등 유물 발굴

박물관, 선사시대 생활상 재현 조형물 등 볼거리 놀이빔 불 피우기, 움집 내부 관람 등 체험거리도



1 서울 암사동 유적 내 '유구 보호각'에서 볼 수 있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터.
2 보호자와 서울 암사동 유적 내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놀비빔 체험을 하고 있다.
3 암사동 유적에 조성된 '체험움집'



◆선사 체험 마을·유구 보호각 등 볼거리 가득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방문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선사시대 생활상을 재현한 조형물이 설치된 '선사 체험 마을'이었다. 그물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직접 잡은 사슴을 어깨에 지고 가는 사냥꾼들, 모닥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먹는 선사시대 사람들을 마을 곳곳에서 마주했다.

지난 5일 선사 체험 마을로 나들이를 나온 동네 주민들은 너른 잔디 위에 돛자리를 펴놓고 소풍을 즐겼다. 그 옆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가 민들레 흙씨를 입으로 후후 불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서울 암사동 유적에는 내부 관람이 가능한 움집도 하나 마련됐다. 움집의 생김새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쓰는 우산 '갈모'와 비슷했다.

이 체험 시설은 암사동 유적에서 발굴 조사된 신석기 시대 움집을 약 1.5배 확대해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창을 손질하는 아버지, 고기를 썬는 어머니, 물고기를 굽는 아들, 음식을 먹는 딸을 표현한 사람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았다. 외형이 실제 사람과 유사해 약간 섬뜩하게 느껴졌다. 어느 정도였냐면 얼음뎡 놀이를 하다가 '얼음'에 걸려 멈춰있는 것처럼 보였다. 체험움집을 빠져나와 유구보호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는 2016~2017년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해 신석기시대 주거지 8기와 삼국시대 주거지 5기, 수혈유구 5기를 확인했다. 그중 일부 중요 유구를 보존하고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보호시설이 이 유구보호각이다.

유구보호각 안에 보존된 신석기시대 주거지가 가장 눈에 띄었다. 이 주거지 내부에서는 탄화된 목재와 돌을 둘러 만든 화덕자리가 확인됐다. 목재의 탄화된 흔적이 비교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 화재로 인해 폐기된 주거지로 추정됐다. 주거지 내부 전체 범위에서 토기편이 출토됐고, 바다면에서는 완성된 형태로 복원 가능한 빗살무늬토기 한 개체가 나왔다고 한다.

강동구는 서울 암사동 유적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는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등재 기원 범국민 서명 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현재까지 서명에 참가한 시민은 총 4658명으로 집계됐다. 캠페인 참가 희망자는 '암사동 선사 유적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 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스케이팅 올스타 2022 개최...곽윤기·김아랑 등 참여 /사진 뉴시스
▲ 코로나로 중단된 익산시장기 여자가구대회, 3년만 개최

▲ "김태형 감독님, 앞으로 10년 동안 두산과 함께해요"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025년 세계총회 유치 총력전 돌입



▲ 맨유 출신 '레전드' 네빌 "EPL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
▲ PGA 2연패 성공 이경훈, 세계랭킹 88위→41위로 도약 /사진 뉴시스